



코스피 2151.31 (-24.23)	코스닥 640.94 (-22.50)
금리 (미국 3년) 1.36 (+0.03)	환율 (원-달러) 1170.80 (+4.40) (8일)



[금융] 하나금융그룹 飛上 2020전략 08

三電 실적 바닥쳤다

(삼성전자)

영업익 7조대 유지

(4분기)

지난해 누적 영업익 27조 전년도 보다 53%나 급감

4분기는 시장 전망 웃돌아 올해부터 본격 개선 기대

삼성전자는 4분기 연결기준 매출 59조원에 영업이익 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잠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6면)

전년 동기대비 매출은 0.46%, 영업이익은 34.26% 감소한 수치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 4.84%, 영업이익



삼성전자가 연결기준으로 매출 59조원, 영업이익 7조1000억원의 2019년 4분기 잠정 실적을 8일 공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8.74% 줄었다.

2019년 한해의 누적 매출은 229조 5200억원이다. 전년(243조7700억원)보다 -5.85% 줄어든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누적 영업이익은 27조7100억원으로 전년(58조8900억원)보다 52.95%나 크게 쪼그라들게 됐다.

단, 전년과 비교해 4분기 영업이익 감소폭이 연중 수치를 비교하면 크게 낮았다. 4분기 실적 회복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는 얘기다.

기대치가 높아진 시장 전망도 충족했다. 업계에 따르면 평균 전망치는 매출액이 60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6조5000억원 정도다. 매출액이 약간 낮았지만, 영업이익은 10% 가까이 높았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 들어 전년보다 크게 낮은 실적을 이어왔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1분기에는 -60.15%, 2분기에는 -55.63%, 3분기에는 -55.75% 등이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4분기를 기점으로 반등을 시작해, 올해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 국내 최초로 실적 공시에 앞서 분기 실적 예상치를 제공해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힘써왔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가 개막한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네온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네온을 보기 위해 모여있다. /구서윤 기자

삼성 인공지능 기술에 CES 발칵 뒤집혔다



비밀리 진행한 인공지능 '네온' 공개 말부터 행동까지 다양한 모습 구현 사람과 너무 똑같아서 무서울 정도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문장을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상태로 듣는다고 생각해보자. 보통은 약간의 어색함이 들기 마련이다. 사람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진짜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도 쉽다. 기계나 아바타라는 티가 분명하게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사람인지 '가짜' 사람인지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 도래했다.

삼성전자가 비밀리에 진행한 인공지능(Artificial Human) 프로젝트 '네온(NEON)'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0'에서 베일을 벗었다. 네온은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 산하 연구소 '스타랩'이 공동인공지능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이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네온은 단순한 'AI

비서'가 아니고 '친구'다. 사람과 똑같은 친숙한 모습으로 일상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네온을 만나보니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화면을 통해 네온을 처음 접했을 때는 '사람 영상 나오는 게 무슨 혁신이라는 걸까'하는 생각을 했다. 눈을 깜빡이는 것부터 고개를 가웃거리는 모습까지 모두 실제 인간의 모습처럼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설명을 듣고 난 후에서야 인공지능이라는 걸 알았다.

이러한 탓에 인공지능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30분 간격으로 진행된 시연에는 매시간마다 네온의 모습을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시연을 본 이들의 입에선 탄성이 절로 나왔다. 심지어 "사람과 너무 똑같아서 무섭다"는 반응도 들었다.

인공지능 네온은 말부터 행동까지 다양한 모습을 구현할 수 있다. 태블릿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문장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그대로 말한다. 책을 읽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이 다.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표정을 설정

하는 것에서부터 눈썹이나 입모양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조절 가능하다. 시연자가 '말을 하면서 눈썹을 위로 움직이도록' 설정하자 네온은 그대로 했다. 버벅거리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카메라도 인공지능인 네온을 사람으로 인식했다. 네온의 눈이 감긴 채 사진이 찍히자 스마트폰 화면에는 '눈을 깜빡였어요'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인공지능이지만 뇌도 존재한다. 웃도록 입력하고 나서 뇌의 상태를 보니 '행복'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이 상용화되면 손님을 접대하거나 운동을 가르쳐주는 트레이너 등 활용 영역은 무궁무진할 전망이다. 네온 관계자는 "아직 상용화에 대한 생각은 없고 다양한 회사와 협업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yuni2514@

CES 2020 관련기사 3, 4, 5면

이란, 美 공격... 증시 급락

코스닥지수 3.39% 떨어져

이란의 이라크 미군기지 공격 소식이 들려오며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지만 곧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코스닥지수는 3.39%나 급락했다. 전일보다 22.50포인트 하락한 640.94에 거래를 마쳤다. 상승종목은 91개에 불과한 반면 하락종목은 1222개로 집계됐다.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지수도 1% 넘게 떨어졌다. 전 거래일보다 24.23포인트(-1.11%) 하락한 2151.31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역시 한 때 1.74%까지 떨어졌으나 오후부터 진정세를 찾으며 낙폭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예상을 웃돈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회복세에 힘을 보탤다. 불안한 증시 속에도 시가총액 1·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1.79%)와 SK하이닉스(3.62%)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노동길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국내 증시에 악영향



이라크 군 당국은 8일(현지시간) "이란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 기지를 목표로 총 2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타격을 받았다. 일본 니케이225지수는 이날 1.57% 하락했고, 홍콩H지수도 1% 이상 하락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40원(0.38%) 오른(원화값 하락) 1170.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시는 당분간 불확실성을 떨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래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연주 연구원은 "이란과 미군의 충돌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됐지만 금융시장 영향은 단기 충격 정도에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태화기자 alvin@

재정 62% 상반기 집행... 공공기관에 60조 투자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SOC 예산 30%, 일자리 37% 등 예타 조사기간 10→7개월로 단축

정부가 46조7000억원 규모의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30% 수준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에 6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정하고 1분기부터 고삐를 죄는 계획이다.

SOC 사업들은 내달까지 사전절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를 마치고 1분기에 철도(6조4000억원)와 도로(6조6000억원) 등 연간 예산(46조7000억원)의 30% 수준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까지 60.5%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사업 예산(11조9000억원)도

1분기에 37.0%를 집행해 상반기까지 66.0%를 쓰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위해 60조원을 투자하겠다"며 "특히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12조원의 초수퍼 예산과 관련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호르무즈 봉쇄되나... 유화·항공 등 원유수급 예의주시

美-이란, 갈등 고조

국내 산업계 '악영향 확산' 우려에
정유업계 "가격상승 가능성 있어"
항공사 "엇친데 덮쳐... 부담 가중"
석화업계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면전으로 치달자 국내 산업계에는 그에 따른 악영향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미국은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이란 군부 실세 거센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공습 살해했다. 솔레이마니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하자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알리 하메네이도 이란 최고지도자 등은 미국을 상대로 한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고 8일 실제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들을 공격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원유 공급량 감소·수송로 봉쇄 등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의 갈등이 격해질 때마다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접해 있는 원유 수송로로서 해협이 봉쇄되면 전세계 원유 공급량의 30%가량이 영향을 받게 된다.



8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 여러 곳을 향해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를 실시했다.

/연합뉴스

또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원유의 공급이 줄어들 유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등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7일 기준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9% (0.57달러) 하락한 62.70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브렌트유는 8일 기준 전날보다 배럴당 1.04% (0.72달러) 하락한 68.19달러에 거래됐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공습 이후 4거래일 만에 하락한 것으로, 지난 6일 WTI는 배럴당 63.72달러로 5월 1일 이후 8개월만에 최고가를 기록했고 브렌트유도 4개월만에 처음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다.

이란이 보복에 나서며 상황이 악화되자 정유·석유화학·항공 등 원유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원유를 수입하는 대표적

인 산업인 정유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에 따라 기존 재고의 가치가 높아져 정제마진이 외려 개선될 수 있지만 사태가 장기전에 돌입할 경우 국제유가가 회복됐을 때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시장에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유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유가가 오른 상황은 아니다. 지금 유가가 오르면 사실 시차 효과에 의해서 정유사들이 과거에 원유가 오르기 전 갖고 있던 재고분에 대해 채고 관련 이익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수요공급에 의해서 오르게 아니기 때문에 원유가 올랐다고 해도 실제 정유사들이 생산해내는 제품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원유는 올랐는데 제품(가격)은 안 오른다고 하면 마진 측면에서 현재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심리적인 부분과 국제 정세 등에 의해서 원유가가 올랐고, 이벤트가 더 발생해서 원유 공급 문제가 생겨 더 오르게 된다고 하면 제품 또한 공급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한다. 현재는 그런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밖에 말할 게 없다.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될 지 지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불황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은 '엇친 데 덮친 격'이라며 "터질 게 다 터졌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는 여러 부분의 영업비용에 있어서 '연료유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해 3분기(누적 기준) 전체 영업비용 9조5044억 3889만원 가운데 유류비가 2조3697억 2406만4000원 약 24.9%로 1순위다. 여객 수요 증가율 둔화 등에 따른 수익도 부진한 상황에서 영업비용마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영업비용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꽤 있다. 그래서 (유가의) 추이를 보고 있는 중이다.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사태가 지속되면 영향이 있을 것이다"며 "운임 같은 경우, 여러 요인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아마 유류할증료가 올라가서

고객 입장에서 느끼는 운임도 상승을 체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유 매입기준은 보통 전달 평균이라 영향이 있을 것이다. 관세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진짜 항공업계가 안 좋은 상황이다. 유가까지도 오르고 있으니 터질 게 다 터졌다"고 말했다.

반면 아직까지 석유화학업계는 미국-이란 사태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석유화학계 관계자는 "석유화학사들은 원유를 직접 수입하지 않고 원유를 정제해서 추출하는 납사를 정유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란산 원유 제재와 관련해 석유화학사가 받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며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될 시, 원유수급 차질 등으로 인해 납사 가격 등락에 일시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미 지속적으로 고조돼 온 미국-이란 간의 갈등으로 인해 납사 수입국들도 대부분 카타르산이나 두바이 유 등에서 추출되는 납사로 구입처를 이미 다각화 해왔기에 수급 유지 및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석유화학제품은 원유를 정제해 이를 바탕으로 생산하는 만큼 유가 급등에 따른 제품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중소업체, 환경부장관 만나 규제애로 호소

"화평·화관·대기법 등에 경영 부담"

중소기업계가 환경부 장관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환경규제에 대한 애로 해결을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로 초청,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였던 환경·노동 문제 가운데 노동 분야는 최저임금 동결, 주52시간제 1년간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일부 해결됐지만 환경 분야는 미해결 과제가 다수"라면서 "화관법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 개선, 가동개시 신고제도 도입 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특히 화관법은 취급시설 기준 준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규제 이행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강화된 대기법 시행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30% 이상 강화돼 이 역시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들은 화평법 때문에 화학물질 다품종 소량 판매기업의 경우 회사당 수백 종의 등록이 필요해 사업 영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등록만료 시기인 2021년 다가올 수록 기업들의 공장 해외이전,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정부 기준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 확대(매년 100개→매년 2500개) ▲소기업(제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 비용 지원 ▲국외시험자료 현황정보 및 구입소통채널 구축 공인시험기관 육성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0.1톤→1톤 상향 등을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경영자가 주목하는 기업인 1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日 닛케이산업신문 설문조사
2위 현대 정의선, 3위 SK 최태원 順

한국 경영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기업인은 국내 재계 순위와 같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닛케이산업신문은 최근 각국 경영자들이 주목하는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위를 차지했다. 3년 연속이다. 이어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계 순위대로 순위를 받았다.

중국에서는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CEO가 1위였다. 현지 기업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을 겪으면서도 선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부터)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 신년합동인사회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구광모 LG그룹 회장.

/연합뉴스

알리바바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마윈이 2위였다.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그룹 손 마

사요시(한국명 손정의) 회장과 토요타 자동차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공동 1위였다.

/김재용 기자 juk@

롯데, 협력사 납품대금 8200억 조기지급



33개 계열사 참여, 파트너사 1.9만 곳

롯데는 설명절을 맞아 파트너사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납품대금 약 8200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중소파트너사들이 명

절에는 급여 및 상여금 등 일시적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앞당겨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롯데백화점, 롯데정보통신,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칠성음료 등 33개사가 대금 조기 지급에 참여하며, 약 1만 9000개의 중소파트너사가 혜택을 보게 된다.

롯데는 연휴 3일 전인 1월 21일까지 모든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평

상시 대비 평균 약 13일을 앞당겨서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롯데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에 기반해 롯데그룹사 동반성장을 평가하는 등파트너사와의 공감(共感)·공생(共生)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롯데는 동반성장펀드를 964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는 롯데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해 파트너사 대출 이자를 자동 감면해주는 것으로 롯데와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제품 아닌 경험 소비시대... ‘초일류’ 팬덤 마케팅 전환”

SAMSUNG

삼성전자

김현석 사장 간담회

올 TV사업 최대 역점은 8K 확대
화질·사운드·디자인 등 차별화

‘더 월’ B2B 이어 B2C로 영토 확장
매스프리미엄시장 성장에 포커스
소비자 경험 혁신 통해 新시장 창출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CE부문장)은 7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CE 사업 비전과 방향을 밝혔다.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업계의 가장 큰 과제는 수요 정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과 5G 등 최신 기술 적용으로 차원이 다른 경험을 제공해 사업을 지속 성장시키겠다.”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CE부문장)은 7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CE 사업 비전과 방향을 밝혔다.

김사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사회 변화를 만들고 있는 ‘밀레니얼 파워’와 ‘디지털화된 일상’이 그 숙제를 해결해 줄 기회이자 위기”라며 “최근 밀레니얼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이나 제품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이 기존과는 완전히 달라 제품 기획뿐만 아니라 마케팅, 유통 전략 등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팬덤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사장은 2020년 CE 부문 주요 사업 방향으로 ▲TV 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8K 시장의 확대 ▲‘더 월’ 등 새로운 시장 지속 육성 ▲라이프스타일 가전 대표 브랜드로서의 시장 영향력

강화라고 밝혔다.

◆8K 시장 확대...3배 성장이 목표

김현석 사장은 “올해 TV 사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TV 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8K 시장의 확대”라며 “올해 신제품은 화질과 사운드는 물론 디자인까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으며, 가격 선택의 폭도 넓혀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8K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TV사업은 2019년까지 14년 연속 1위를 달성했으며, 특히 QLED TV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540만대 이상을 판매했다.

◆‘더 월’ 등 새로운 시장 지속 육성

삼성전자는 지난 5일(현지 시간) ‘삼성 퍼스트 룩 2020’ 행사를 통해 75형부터 292형까지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더 월’ 라인업을 대거 선보이며, 가정용 마이크로 LED 스크린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김 사장은 “더 월은 화질뿐 아니라 화면 크기, 화면비, 해상도 등에 제약이 없어 미래 TV가 가야 할 방향을 대표하는 제품”이라며, “올해는 B2B에서 B2C까지 본격적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진정한 명품 스크린의 세계를 제시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라이프스타일 TV는 지난해 이미 성장 잠재력을 확인했으며, 올해는 매스프리미엄 시장으로 성장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영향력 강화

지난해 밀레니얼을 철저히 분석해 출시한 ‘비스포크’ 냉장고의 성공으로 삼성전자 생활가전의 새로운 사업 방향인 ‘프로젝트 프리즘’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의 일반 냉장고 대비 20~30만원 비싸지만, 작년 4분기 기준 국내 냉장고 매출에서 비스포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달한다. 비스포크 출시 전 역성장하던 수치 두 바퀴가 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김현석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는 소비자 경험에 중심을 둔 혁신 제품과 유통·마케팅을 강화해 라이프스타일 가전 대표 브랜드로서의 위상과 시장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등을 중심으로 한 두 번째 프로젝트 프리즘 제품은 1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SKT 주장 CES서 ‘깜짝 회동’

고동진-박정호 삼성부스 관람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IM부문장)이 7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0’ 현장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함께 삼성전자 부스를 돌아보며 5G와 미디어 분야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11시경 고 사장과 박 사장은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 미니 로봇 ‘볼리’, 식물재배기, 디지털 콕핏, ‘더 세로’ 등 전시된 제품을 20여 분 정도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전시장을 둘러보는 내내 고 사장과 박 사장 모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출시한 세로형 TV 더 세로를 보러 가는 길에 고 사장은 “우리 박 사장님이 어떤 TV를 구입하도록 보여드려야 할까”라며 환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특히 박 사장은 5G와 4G의 게임 속도를 비교하는 장면에 관심을 보였다. 4G로 진행한 게임에서는 다소 버벅임이 있었던 반면 5G로 진행한 시연에서는 게임이 매끄럽게 구동됐다. 이들은 지난해 열린 ‘CES 2019’에서도 부스를 함께 돌며 협력을 이야기한 바 있다.

한편 고동진 사장은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과도 함께 삼성전자 부스를 살펴봤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yuni2514@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IM부문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왼쪽)이 삼성전자 ‘더 월’을 관람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車안에 디스플레이가 8개... 5G 자율주행 엑셀 밟았다

삼성, 5G 기반 ‘디지털 콕핏’ 공개

운전석·조수석 중앙에 12.4형 DP
맞춤형 즐거거리, 운행정보 서비스
‘케빈토크’기능으로 뒷좌석과 대화

하만과 공동개발, 전장사업 가시화
이르면 2022년부터 성장세 기대



7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0’에 위치한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박종환 삼성전자 전장사업팀 부사장이 ‘디지털 콕핏 2020’을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 5G 기반의 ‘디지털 콕핏 2020’을 CES에서 선보였다.

디지털 콕핏이란, 운전석 및 조수석 전방 영역에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계기판 대신 디지털 제품을 입힌 것으로, 삼성전자가 인수한 미국 전장전문기업 하만과 공동 개발한 첫 결실이다.

올해 선보인 디지털 콕핏은 5G를 기반으로 차량 내부와 주변을 연결해 운전자·탑승자·보행자가 더 안전하고 편

리한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 전장사업팀장 박종환 부사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세번째 디지털

콕핏은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 우리가 자동차 생활 공간이 완전히 새로운 생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고민해 만든 것”이라며 “삼성이 하만 인수 3년 만에 삼성 기술이 하만 전장사업에 들어가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매출이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삼성과 하만이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는 해가 내년 혹은 내후년으로 예상된다. 수주를 확보한다고 해도 3~4년 후에 매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박 부사장은 2022년이나 2023년부터 매출이 늘어나 매년 두 자릿 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면 8개, 카메라 8대

디지털 콕핏 2020은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더 편리하고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앞좌석에는 총 8개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뒷좌석에는 탑승자 소유의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석과 조수석 중앙에 위치한 12.4형의

중앙 디스플레이는 탑승자 인증을 통해 개인별 즐길 거리나 운행 정보 등을 ‘마이 페이지’ 형태로 맞춤 제공한다. 2개의 디지털 노브를 통해서도 공조, 음악 선곡, 빅스비 등을 구동할 수 있다.

그 아래에 위치한 12.3형의 콘솔 디스플레이로는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차량의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차량 내부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할 수 있다.

차량 전면 유리 아래에는 20.3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주행 정보와 도로 상황, 안전 운전과 관련된 알림과 경고를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또, 무선으로 휴대폰을 연결해 차량 내에서도 PC에서 작업하던 문서를 편집할 수 있다.

이번 디지털 콕핏 2020에는 알림·경고로 통해 안전한 주행을 지원하는 기능들도 대폭 강화됐다. 뒤돌아 보지 않고 운전석 옆의 디스플레이로 뒷좌석 탑승자를 보면서 대화하는 ‘케빈 토크’

기능도 추가됐다.

더불어, 삼성전자의 통합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와 더욱 진화한 ‘빅스비’가 적극적으로 운전자와 소통한다. 예를 들어, 집에 낯선 사람이 방문할 경우 스마트싱스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차량에 탑재된 빅스비가 이를 알려주고, 집 도착 전에 집안의 조명과 에어컨을 켜 놓는다.

◆BMW에 세계 최초 5G TCU 공급

삼성전자와 하만이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적용한 TCU(차량용 통신 장비)는 2021년 양산되는 BMW의 전기차 ‘아이넥스트(iNEXT)’에 탑재된다. 이는 5G TCU가 실제 차량에 적용되는 첫 사례다. 이번 공급은 삼성전자와 하만이 공동 개발한 제품의 첫 수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삼성전자는 서울시 버스와 택시에 5G TCU를 탑재한 실증 사업을 SK텔레콤과 함께 진행 중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AI 기술 확보가 곧 경쟁력... 고객 감성까지 케어”



하현회 부회장 비즈니스 모델 발굴

구글 등 글로벌 기업부스 집중탐방
미래 발전에 대한 인사이트 구상
공공장소 맞춤형 AI 서비스 관심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을 찾아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자율이동의 융합에서 이동사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섰다.

하 부회장은 7일(현지시간) LG전자 부스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파나소닉, 구글 부스를 연이어 방문, AI기반 통합 솔루션 기술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인사이트를 구했다고 8일 밝혔다.

7일 가장 먼저 방문한 LG전자 부스에서는 AI 기반의 안내와 서빙 로봇, 조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왼쪽 네번째)이 7일(현지시간)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0 센트럴홀에 위치한 LG전자를 방문, LG G8X 싱큐와 듀얼 스크린을 살펴보고 있다. /LG유플러스

리오 바리스타 로봇, 가상 의류 피팅 솔루션 등 공공장소에서의 맞춤형 AI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며, AI를 기반으로 연동되는 홈 가전기와 모빌리티 등 확장성에 대해 세심하게 살폈다.

하 부회장은 “AI 기반의 가전기기, 모빌리티 등이 고객의 일상을 크게 바

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고객의 감성까지 케어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가 곧 경쟁력으로 직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 부스를 찾은 하 부회장은 구글 어시스턴트(음성비서)를 주축으로 가정과 자동차, 스마트폰에서 끊임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우)과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좌)이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 선보인 5G(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디지털 콕핏 2020’을 체험하고 있다.

없이 연동되는 스마트홈 라이프를 체험했다.

하 부회장은 구글 아시아퍼시픽 어시스턴트 디스트리뷰션 총괄 클레어우를 만나 “100만 이상의 홈 IoT 가입자를 보유한 LG유플러스의 경쟁력과 스마트홈 라이프를 구현하는 구글과의 협업은 고객에게 차별적인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 부회장은 이어 모빌아이(인텔)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CES 2020의 메인 키워드인 자율이동(Autonomous mobility) 전산업체를 찾아 기술 및 서비스 현황, 플랫폼 등을 직접 체험했다.

부품 기업에서 자율주행 솔루션 제공기업으로 성장한 모빌아이 부스에서는 자율주행 솔루션 상품(ADAS) 개발 현황과 맵핑 기술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대자동차와 현대차 그룹 내 모빌리티 핵심기업인 현대모비스 부스를 연이어 방문 모빌리티 컨셉카와, 개인 비행체(PAV), 로보택시 등의 기기를 중심으로 자율이동과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다.

8일(현지시간)에는 지난해 국내 독점으로 도입한 Nreal사의 AR 글래스 분야의 ‘100인치 대화면 시청’, ‘360도 AR 콘텐츠’와 모빌이 착용한 가방이나 옷을 직접보고 구매할 수 있는 ‘AR 쇼핑’, ‘AR 게임’ 등 AR 서비스와 새로운 UI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지난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쇼 CES 2020 내 SK그룹 전시관 모습. /SKC

세계서 가장 얇은 ‘4μm 동박’ 모빌리티 소재 시장 先 공략

〈2차전지 음극 소재〉



차량경량화 소재, PCT 필름 상용화
투명 PI 필름·친환경 폴리우레탄 소재

SKC가 CES 2020에서 모빌리티 소재를 선보였다.

SKC는 지난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0에서 고부가·고기능 모빌리티 소재를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모빌리티를 반도체·친환경·디스플레이와 함께 주요 성장 축으로 삼은 SKC는 이번 CES 2020에서 모빌리티 소재 기업으로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SKC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소재인 배터리 음극재 소재 동박, 경량화 소재 PCT 필름, 미래 디스플레이 소재 투명PI 필름, 자동차 내장재용 친환경 폴리우레탄 등을 소개했다.

2차전지 음극 소재로 쓰이는 동박은 배터리 고용량화와 경량화로 이어지는 모빌리티 핵심 소재다. 얇을수록 전지에 많은 음극 활물질질을 채울 수 있어 얇

게 만드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월 7일 SKC의 100% 투자사로 새출발한 KCFT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4μm 동박을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차량 경량화 소재인 PCT 필름은 SKC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제품이다. 열과 습기, 알칼리에 강하고 절연 성능이 뛰어나 차량용·특수산업용·5G케이블용 소재로 쓰인다. 특히 PCT 필름으로 만든 FFC(Flat Flexible Cable)로 두꺼운 차량 내 구리선 케이블과 잘 휘지 않는 ‘배터리 버스바(busbar)’를 대체할 경우 구리 사용량이 절반 정도로 줄어 차량 경량화가 가능해진다.

투명 폴리이미드(PI) 필름은 미래 자동차 내부 곳곳의 디스플레이에 쓰일 수 있다. 유리처럼 표면이 딱딱하면서도 깨지지 않고 잘 접하는 특성 때문에 폴더블, 롤러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 각광 받는 투명PI 필름은 미래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 소재로도 관심 받고 있다.

SKC는 합작사 MCNS의 자동차 내장재용 친환경 폴리우레탄 넥스티올도 선보인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미래 자율주행의 ‘눈’... 단일 광자라이더 첫 선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감지하고 3D 영상 모델링 기술〉



홍콩 전기차 업체 바이톤과 MOU
차량 개발·마케팅 등 서비스 협력

광자 라이더로 기존 라이더 한계 극복

SK텔레콤이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기술(IT) 전시회 ‘CES 2020’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차세대 모빌리티 협력에 나선다. 차세대 전기차 출시 협력 뿐 아니라 미래 ‘자율주행 눈’이라 불리는 단일 광자 라이더도 선보일 방침이다.

SK텔레콤은 7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CES 2020 현장에서 SK텔레콤 유영상 MNO사업부장과 바이톤 다니엘 키르헤르트 CEO가 참석한 가운데 바이톤의 한국 출시 전기차 대상 양사의 포괄적인 협력을 목표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바이톤은 BMW, 닛산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 출신 핵심 인력들이 2017년 홍콩에 설립한 전기차 업체다. 양사 협력은 차량 내부 통합 IVI 개발과 적용, 마케팅 지원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IVI란, 차량 탑승자를 위한 주행정보와 즐길 거리를 통칭하는 용어다.

SK텔레콤은 자사의 ‘통합 IVI’ 서비스가 48인치 초대형 곡선형 터치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디지털 활용 환경을 갖춘 바이톤 차량과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K텔레콤은 이번 CES에서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T맵’과 음원 서비스인 ‘플로(FL O)’ 및 각종 동영상 등을 차량 기본 탑재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 IVI’ 시스템을 선보이기도 했다.



SK텔레콤 유영상 MNO 사업부장(왼쪽)과 바이톤 다니엘 키르헤르트 CEO가 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0 현장에서 차세대 전기차 한국 출시를 위한 포괄적인 협력을 골자로 MoU를 체결하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이 CES 2020 전시 부스에서 공개한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더’ 시제품.

의 눈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향후 다양한 분야에 널리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이번 CES 2020에서 글로벌 전자기업 파이오니아 스마트 센싱 이노베이션스(PSSI)와 양사의 핵심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더 시제품을 공개했다. 양사는 지난해 9월부터 기존 라이더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더 공동 개발을 진행해 왔다.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더는 PSSI의 2D MEMS 미러 스캐닝 기술과 SK텔레콤의 양자 센싱 핵심 기술인 ▲1550나노미터(nm) 파장 레이저 모듈 ▲단일 광자 포토 다이오드(SPAD) 기술 등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높은 해상도를 확보해 명확한 물체 인식이 가능하고, 빛의 반사도가 낮은 물체도 정확하게 탐지해 기존 라이더의 인식 한계를 극복했다는 설명이다. 눈이나 비가 쏟아지는 악천후 상황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

향후에도 SK텔레콤은 PSSI와 양사의 핵심 요소 기술을 결합, 지속 협력해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더 센서를 더욱 고도화 시킬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향후 SK텔레콤의 장점인 5G를 차량에 적용해 차량 내에서 초고화질의 대용량 미디어 서비스를 끊김없이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고화질(HD)맵 실시간 업데이트 등 각종 기술이나 서비스를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SK텔레콤은 바이톤의 전기차 판매 및 사후서비스(A/S) 분야에서도 자사 보유 채널을 활용한 협력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미래 자율주행의 눈인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더’ 협력에도 나선다. 라이더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사물과의 거리 및 다양한 물성을 감지하고 이를 3D 영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로, 자율주행차

미래 모빌리티 UAM vs 비전 AVTR vs 우븐시티 3강구도

<현대차>

<벤츠>

<도요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0'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대거 선보였다.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의 개념을 벗어나 우리 삶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대 모빌리티 기업 우버와 손잡고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제시했다. 독일 자동차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는 할리우드 영화 아바타에서 영감을 받은 미래 콘셉트카 '비전 AVTR'을, 일본의 도요타는 모빌리티로 도시를 연결하는 '우븐 시티'를 공개했다.

현대차는 올해 인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는 UAM(도심항공모빌리티)로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고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로 도로 위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두 종류의 스마트 모빌리티는 미래도시 전역에 설치될 허브(모바일 환승 거점)와 연결돼 모빌리티 생태계를 형성한다. 설계에 따라 카페, 병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기존 자동차가 장소를 이동해주는 운송수단의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활공간을 넘어 삶의 공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현대차는 PAV(개인용 비행체) 콘셉트 'S-A1'과 주거용과 의료용으로 제



7일(현지시간) 개막한 CES 2020에서 현대차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PBV콘셉트 'S-link'.

현대차

'우버'와 손잡고 하늘과 지상 연결, 생활공간 넘어 삶의 공간 확대

작된 PBV콘셉트인 'S-link(에스-링크)'도 실물크기로 전시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현대차는 이번 전시회에서 벤츠와 아우디, 도요타 등이 전기차 등을 소개한 것과 달리 전통적인 형태의 콘셉트카를 선보이지 않았다. 현대차는 개인항공기 비중을 30%까지 올릴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기반 도심 공유형 모빌리티 콘셉트인 엠비전 S(M.Vision S) 등을 전시했다. 엠비전 S는 지난해 공개한 엠비전보다 한 단계 진화한 수준으로, S는 공유(셰어링) 가능한 모빌리티를 의미한다. 엠비전 S는 탑승객이 공연장에 갈 때는 그에 맞춰 음악과 조명을 제시하는 등 탑승객과 교감



메르세데스-벤츠가 7일(현지시간) 개막한 CES 2020 전시관에 '비전 AVTR' 쇼카를 공개했다.

벤츠

제임스 카메론 영화감독과 협업 컨트롤러에 손대면 심박수 인식

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비전 AVTR' 콘셉트카를 공개했다. 벤츠와 할리우드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이번 콘셉트카는 상상력이 더해진 벤츠의 미래 지향적 기술력을 보여준다. 자동차 내 모든 차체와 타이어까지 렉서리한 감성을 품은 유선형으로 형상화됐으며 밝은 조명이 더해지면서 연결성이 강조됐다. 비전 AVTR은 유선형이 강조된 차체에 밝은 조명이 어우러져 미래지향적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인간과 기계의 연결이라는 테마가 강조됐으며 자율주행이 기본 사양으로 갖춰졌

도요타

수소연료 전지, 에너지로 운영 70만㎡ 규모 2021년부터 조성

다. 탑승객이 타원형 컨트롤러에 손을 갖다대면 심박수를 인식해 차량이 함께 진동한다. 차량 소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마치 파충류의 비늘을 연상시키는 33개의 '바이오닉 플랩'은 차량 외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사용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머지않은 미래에 구현될 인간과 기술 간 긴밀한 연결성에 대한 메르세데스-벤츠의 비전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환경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미션을 표현하는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아우디는 탑승자와 교감할 수 있는 모빌리티인 'AI:ME' 쇼카를 선보였 다. 눈으로 차량과 직관적으로 소통하



아우디가 7일 개막한 CES 2020 전시관에 자율주행차 'AI:ME'를 공개했다. /양성운 기자

고 가상현실(VR) 고글을 착용하면 가상비행을 즐길 수 있으며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제3생활공간을 지향한다. 아우디 인텔리전스 익스피리언스는 사용자 습관을 학습하고 AI와 결합한 지능형 기능을 사용해 탑승자의 안전과 편안함을 향상시키게 된다. 도요타는 모빌리티로 도시를 연결하는 '우븐 시티'라는 콘셉트를 공개했다. 해당 도시는 수소연료 전지를 에너지로 운영되며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로봇 공학, 모빌리티 서비스 등 다양한 미래기술 분야를 실험하는 곳이다.

일본 후지산 근처에 자리잡게 될 '우븐 시티'는 175에이커(70만㎡)의 규모로 2021년부터 조성될 예정이다. 이 도시는 도요타 임직원 및 가족 2000여명이 실제로 거주하며 다양한 미래기술 실험들을 시도한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sw@metroseoul.co.kr



워터인덕션+식기세척기 결합 콘셉트 제품.

CES 5번째 노크... 공청기·비데 글로벌 진출

웅진코웨이 현 사명으로 마지막 참가 워터 인덕션+식기세척기 결합 제품 등

CES에 올해로 5번째 참가하는 웅진코웨이는 글로벌 시장 추가 공략을 위해 '자가관리형 공기청정기'와 '비데 메가'를 새로 선보였다.

자가관리형 공기청정기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가 스스로 필터 세척 및 교체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제품은 최근 국내 시장에서 자가관리하기 손쉬운 공기청정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선보인 혁신 제품이다.

자가관리형 공기청정기는 사용자가 시기에 따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프리필터의 세척이 필요한 시점과 초미세 먼지 집진필터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에 맞춰 알람을 주는 스마트한 제품이다. 또한 정기적인 세척이 필요한 프리필터

특성에 맞게 제품을 오픈하지 않아도 필터를 위로 쏙 뽑아 꺼내 간편하게 세척이 가능하도록 혁신적인 디자인을 접목해 관리 편의성을 강화시켰다. 또한 기존 동일 평형대의 자사 제품 대비 약 40% 정도 사이즈를 축소해 공간 효율성도 높였다.

자가관리형 공기청정기는 이달 중국 내 출시를 시작으로 유럽, 대만, 미국, 일본 시장 등에서 연이어 선보일 계획이다.

웅진코웨이는 또 이번 전시에서 실속형 제품인 '비데메가(Bidetmega)150'과 프리미엄 제품인 '비데메가 400'도 내놨다. 미주 소비자 조사 결과 비데의 야간 변화 라이팅 기능과 어린이 맞춤 모드,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으로 파악돼 이번에 출시되는 비데 2종에 모두 이들 기능을 적용했다. /김승호 기자

고대유적 이어 영화관도 옮긴 CJ대한통운

CJ 4DPLEX 통합관 '4DX Screen' 천장까지 스크린 더해 4면이 스크린 美 CES 행사장까지 운반 후 회수까지

CJ대한통운이 첨단 영화 상영관을 한국에서 미국까지 날랐다.

CJ대한통운은 'CES 2020'에 참가하는 CJ 4DPLEX의 통합관 '4DX 스크린' 설비를 운송했다고 8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4DX 스크린을 구성하는 모션체어와 각종 효과를 위한 설비 일체를 총복 오창의 CJ 4DPLEX 생산지에서 각각 인천공항과 부산항까지 육상운송하고 선박과 항공기를 통해 미국라스베이거스로 운송, 행사장까지 반입해 설치하며 행사 뒤 국내로 다시

회수하는 업무까지 맡았다.

4DX 스크린은 바람, 물, 향기 등 21개 이상의 환경효과와 모션체어가 결합돼 영화 관람의 새로운 지평을 연 오감 체험 특별관 4DX와 중앙과 좌우 벽면 3면 스크린을 통해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크린X를 결합한 혁신적인 통합 상영관이다.

특히 이번 CES에서 최초 공개하는 한층 진화된 4DX 스크린은 기존 3면에 천장까지 스크린을 더해 총 4면의 스크린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CES는 45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급의 전자박람회로 워낙 많은 업체가 참가하다 보니 각 운송 구간 별로 일자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예정된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화물 반입이 금지돼 전시회 참가가 불가능하다. 또한 항공과 해상이라는 두가지 방식으로 운송하고 통관규정이 엄격한 미국

세관을 통과해야 한다. 화물의 안전한 취급은 기본이다.

CJ대한통운은 화물 특성에 맞춰 항공과 해상으로 운송수단을 나누고, 화물안전과 일정 철저 준수를 최우선으로 운송을 수행했다.

화물을 내외로 꼼꼼히 포장하고, 컨테이너에 적입할 순서와 위치 등의 레이아웃까지 짜서 컨테이너에 적입했다. 미술품, 정밀전자기기 등의 국제 복합운송에 다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제전시 담당 베테랑 직원들이 운송 각 과정을 꼼꼼히 확인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운송을 총괄한 CJ대한통운의 김기현 국제전시파트장은 "혁신기술이 망라한 CES에 우리나라의 첨단 상영관을 소개하는데 일조하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마지막 국내 회수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운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CJCGV의 자회사인 CJ 4DPLEX는 이번에 영화 상영업체와 CJ그룹 최초로 세계 최대의 IT, 가전 전시회인 CES에 참가하게 됐다.

CJ 4DPLEX는 4DX, 스크린X, 4DX 스크린 등 독보적 영화상영 기술을 개발해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다. 지난 2009년부터 10여년 간 총 220개가 넘는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68개국에 약 1천여 개의 스크린과 13만 좌석 등 세계 98개 주요 극장사에 진출해왔다. /김승호 기자 bada@



빨라진 반도체 회복시계... 폰 시장 녹인 '갤럭시 폴드'

삼성전자 실적 해부

4분기 영업이익 34% 줄었지만
시장선 회복 기대감에 주가 ↑
메모리반도체 가격 반등 조짐
스마트폰·가전 실적개선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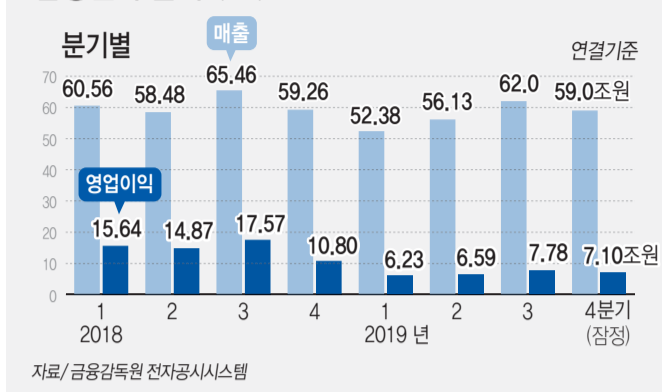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4분기 반등을 확정하며
올해 회복 기대감을 높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잠정실적을
8일 공시했다. 매출액 59조원에 영업
이익 7조1000억원이 예상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성적
이긴 하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액은
0.46%, 영업이익은 34.26%나 줄어든
수치다. 전분기와 비교해도 각각
4.84%, 8.74% 줄었다.

그러나 3분기에 이어 4분기도 연속
으로 영업이익 7조원을 넘어섰다는 점
은 주목할만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
~2분기에는 6조원대에서 머물다가, 3
분기 들어서 7조원대를 다시 되찾았다.
전년비 변동폭을 보면 실적 개선은

삼성전자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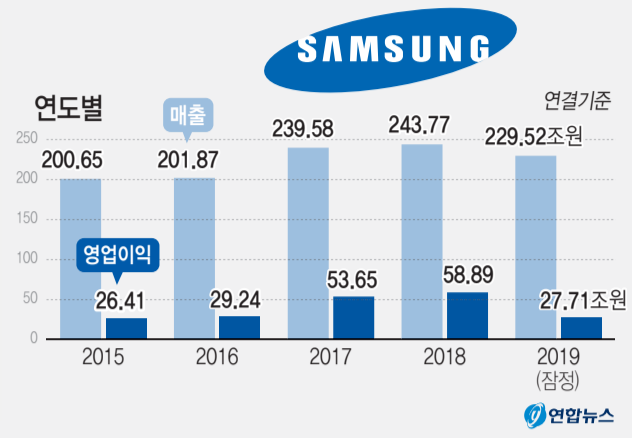
더 분명하게 확인된다. 삼성전자는 지
난해 전년비 영업이익이 1분기에는 -
60.15%, 2분기에는 -55.63%, 3분기에는
-55.75%를 기록했었다. 4분기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회복한 셈이다.

매출액 역시 1분기에는 -13.5%, 2분
기에는 -4.03%, 3분기에는 -5.28%로
저조했다가, 4분기 들어서는 -0.46%로
거의 전년 수준을 따라잡았다.

시장 기대도 충분히 충족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회복론이 이어지
면서 삼성전자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
익을 잇따라 높여잡은 바 있다. 실제 실

적도 거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을 기
록하면서, 이날 삼성전자 주가도 가파
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
던 이유는 단연 메모리 반도체 시장 회
복이 꼽힌다. 지난해 3분기가 끝날 무렵
부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가시적으로
늘었고, 판매 가격도 반등할 조짐을 보
였다. 낸드플래시 메모리는 이미 가격
이 오르기 시작한지 오래, DRAM도 최근
들어 '바닥'을 찍었다. 채고도 정상에
가까운 4주 수준을 회복했다고 알려졌
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역시 삼성전자 실
적에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S10과 갤럭시
노트10에 이어 갤럭시 폴드까지 발표하
면서 얼어붙었던 스마트폰 시장에 다시
활력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미중무역분
쟁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중저가폰 시
장에서도 크게 활약했다.

가전 부문 역시 실적 개선에 주요했
다는 평가다. QLED TV가 경쟁 제품
추격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하는 가운데, 세탁기와 건조기 시
장에서도 경쟁사 품질 이슈에 따른 판

매량 증가 효과가 예상됐다. 비스포크
냉장고 등 라이프스타일 신가전 역시
글로벌 시장 인기 물이에 성공했다.

디스플레이 부문만은 다소 주춤했
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산 LCD 패널 공세
가 더욱 심화하면서 경쟁력 약화에 따
른 수익 감소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다. 지난해 구조조정과 신사업 투자를
개시하긴 했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서
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올해 실적 기대도 크게 높아졌다. 올
해 5G 보급과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 인
텔 CPU 공급 재개 등 호재들이 메모리
시장에 다시 한 번 '슈퍼 사이클'을 기
대케 하는 데다가, 삼성전자가 미래 먹
거리로 선정한 시스템 반도체와 전장
등 분야도 본격적으로 커지는 분위기
다. 특히 반도체 시장은 올해 크게 반등
해 내년에도 또다시 신기록을 세울 것
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SK하이닉스도 이날 반도체 회
복 기대에 따라 역대 최고 주가를 경신
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31일 2019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기대 높았나... 영업이익 30% 급증에도 전망치 크게 밑돌아

LG전자 2019년 4분기 실적

매출 16조610억... 전년 비 1.8% ↑
영업익 증권사 전망치보다 87% ↓
올레드 TV 등 가전 판매저조 기인

LG전자가 뜻밖의 저조한 실적을 기
록했다.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6조610억원, 영업이익이 986억원을 기
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
이었다. 매출액은 1.8% 증가했고, 영업이
익은 30.3%나 급증했다.

그러나 시장 기대보다 훨씬 낮은
성적이 충격을 가져다줬다. 업계에 따르
면 증권사 전망치 평균은 매출액 16조
5000억원, 영업이익 2800억원이었다.



LG전자 트윈타워 빌딩. /뉴스시스

매출액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3분
의 1에 불과했다. 전기와 비교해도 매출
액이 2.3% 늘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87.4%나 쪼그라들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올레드 TV 판매
가 저조했던 데다가, 건조기 사태에 따

른 영업비용 증가 및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2019년 성적은 나쁘지 않았
다. 매출액이 62조3060억원으로 3년 연
속 60조원 돌파에 성공했다. 전년(61조
3417억원)보다도 1.6% 성장하면서 연
간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영업이익도 2
조4329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
던 전년보다 10% 적은 수준을 지켜냈
다.

올해 전망도 어둡지 않다. LG디스플
레이가 광저우 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올레드 TV 가격 하락 및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기와 스타
일러 등 신 가전에서도 적지 않은 수익
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G
보급에 따라 스마트폰 V50 판매 증대
가능성도 높다. /김재용 기자 juk@

BMW

전문구동 최초 적용 뉴 1시리즈 韓 출시

BMW가 1시리즈를 국내에 출
시한다고 8일 밝혔다.

1시리즈는 컴팩트 해치백 모델
로, 2004년 후 200만대 이상 판매
됐다. 모델 최초로 전문구동 방식
으로 실내 공간을 넓히고 '진정한
운전의 즐거움'을 갖췄다.

4기통 디젤엔진이 힘을 내며, 최
고출력 150마력에 최대토크 35.69
kg·m을 발휘한다. 스텝트로닉 8
단 변속기를 조합해 효율도 극대
화했다. 복합연비는 14.3km/l다.
액추에이터 휠 슬립 제한장치(AR
B)도 내연기관 최초로 적용했다.

실내 디자인은 운전자 중심으
로 디자인했다. 모델에 따라 센
사텍 스포츠 시트와 알칸타라 M
스포츠 시트를 적용했으며, 모든
모델에 고성능 후면발광 인테리
어 트림인 '일루미네이티드 인테
리어 트림 피니시'를 탑재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새로
디자인한 BMW 라이브 콕핏 프
로페셔널로, 10.25인치 디스플
레이와 고해상도 계기판을 보
여준다. 가격은 뉴 118d 조이 퍼
스트 에디션 4030만원, 뉴 118d
스포츠 4280만원, 뉴 118d M 스포
츠 4640만원, BMW 샵 온라인
에서 한정 판매되는 뉴 118d
M 스포츠 퍼스트 에디션 4940
만원이다. /김재용 기자



대륙 강타한 요스타 '명일방주' 韓 상륙... 中 흥행 잇나

중국 출시 한달 만에 앱스토어 1위
디펜스 장르 결합해 재미 '극대화'

중국 대륙서 출시 직후 애플 앱스토
어 최고 매출 1위를 달성하며 인기를 끈
모바일 게임이 국내 시장 진입을 앞두
고 있다.

글로벌 게임업체 요스타는 8일 서울 C
GV첨단벤처시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
고, 하이퍼그리프가 개발한 '명일방주'
를 오는 16일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명일방주는 지난해 4월 중국에서 출
시된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으로
출시 직후 애플 앱스토어 최고 매출 1위
를 기록하기도 했다. 디펜스(진지방어)
장르를 결합해 재미를 극대화했다. 국



요스타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명일방주'를 소개하고 있다. /요스타

내 및 일본 등 글로벌 사전예약자 수도
100만명을 달성했다.

명일방주는 '재앙'으로 황폐화 된 세
상에 등장한 광물 '오리지늄'과 이를 들

러싼 사투를 다룬 모바일 게임이다. '디
펜드', '스나이퍼', '메딕' 등 총 8종의
다양한 오퍼레이터 클래스가 존재하
며, 캐릭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시
킬 수 있다.

명일방주 서비스 퍼블리싱을 맡은 요
스타는 2014년 설립됐으며, 중국 상하
이에 본사를 두고 있다.

요스타 요몽 대표는 "명일방주는 중
국어 출시 한달 만에 앱스토어 매출 1위
를 차지하는 등 현재 호평 속 인기 지식
재산권으로 자리매김하는 모바일 게
임"이라며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을 유
저와 함께 나누자"는 경영 철학을 실행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요스타는 아포칼립스

느낌의 게임 세계관이 담겨있는 2분 가
량의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 풀 버전을
공개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명일방주가 국내 시장에
정착될 지 주목되고 있다. 미소녀 캐릭
터를 앞세운 중국의 '소녀전선'도 마니
아 층을 겨냥해 국내 시장에서 흥행을 거
둔 바 있다. 다만, 요스타는 소녀전선과
는 선을 그으며 명일방주의 게임성을
강조했다. 요스타 관계자는 "명일방주
와 소녀전선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
비교가 어렵다"며 "명일방주는 전략성
을 극대화 했고 스타일이 독특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요몽 대표는 "한국 법인을 세우는 것
은 간단치 않고 절차가 복잡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
서도 한국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 기자 silnki@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미래금융 위시리스트

- ✓ 금융거래도 5G 속도로 되면 좋겠다
- ✓ 환전도 예금조회처럼 간편했으면

손님의 바람
하나하나를 모아
더 빠른 금융을 만듭니다

기다림이 짧아질수록 손님의 기쁨은 커지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더 빠른 미래금융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누리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



쉽게 환전하고 당일 수령하는
모바일 환전 서비스



JT의 꿈, 사회적 금융-디지털·글로벌 두 날개로 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금융, 飛上 2020 전략

(3) 하나금융그룹

“과거 성공방식 미래 보장할 수 없어”
혁신기업에 기술금융·투자 진행
RPA 등 기술 통해 업무 전문성 강화

하나금융그룹은 2020년을 ‘변화(Reset)의 해’로 잡았다.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제는 급격한 기술 발달을 고려해 야할 뿐만 아니라 주주·손님·직원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기술의 발달과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과거 10년의 성공 방식이 다가오는 10년의 성장과 생존을 담보해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프로세스 고도화로 체계적 손님관리

하나금융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조404억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7.8%(1483억원) 증가한 수치다. 하나금융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한 2조4494억원이 예상된다. 비은행 계열사 수익이 큰 폭으로 향상되면서 그룹 내 사업부문간 포트폴리오가 한층 탄탄해진 점이 순익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명동 사옥 대강당에서 그룹 출범 14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넥스트 2030 경영원칙”을 선포했다. 이날 김 회장은 ‘CEO 특별강연’에 참석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리셋(Reset)’·‘리빌드(Rebuild)’·‘게임(Game)’이라는 3대 경영원칙을 제시했다. /하나금융그룹

했다.

이제 하나금융은 더욱 고도화된 디지털화 및 협업체계를 통해 고객 경험을 높일 계획이다. 업권의 경계를 넘는 사업부문제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별 고객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클라우드 등 기술을 통해 업무 전문성도 높인다.

고객의 여정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상품의 신규에서 만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자동화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하나금융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산·부채 포트폴리오 조정 및 준비·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위기 발생시 대응력을 높인다. 상품의 성과 측면에서는 고객 수익률 중심 평가를 확대하고, 고객 관점에서의 완전판매를 시스템화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은행의 문화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 사회적 금융으로 ‘모두의 기쁨’ 달성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을 통

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강조했다. 하나금융의 경영 슬로건을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로 바꾼 것은 그래서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 금융 혁신으로 금융소외 계층을 지원하고,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서민·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어 국공립·직장어린이집 건립 등 보육사업을 지원해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혁신기업에 기술금융과 투자 등을 진행함으로써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1Q 애자일 랩(Agile Lab)과 글로벌 벤처캐피탈 제휴 등을 강화한다.

더 나아가서는 신남방지역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대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품을 수 있는 글로벌 포용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새로운 2020년에는 우리의 강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사회와 손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글로벌 협업으로 미래 금융 선도

하나금융은 계열사 간 협업과 더불어

어 외부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화해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기존의 사업 기반은 확고히 다지면서 신사업 발굴과 추진을 상시화·시스템화해 그룹의 수익기반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디지털 협업을 통해 미래 금융산업의 선도역량을 확보할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하나원큐의 모바일 전용 상품과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기반으로 생활금융(오토·여행·헬스) 플랫폼과의 제휴를 확대해 모바일과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마케팅 채널을 더욱 다변화하는 등 디지털 경영도 적극 추진한다.

이어 하나금융은 신남방 지역과 같이 성장성 있는 해외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 채널을 확장할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현지 금융기관 인수합병(M&A)과 자본투자(베트남 BIDV은행, 현지 ICT·플랫폼 사업자 제휴(인도네시아 라인뱅크) 등을 통해 다각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했다. 향후 하나금융은 주요 지역 해외점포의 심사 현지화를 통해 현지 맞춤 경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비대면채널로 해외송금 시 80% 환율 우대

우리은행 해외송금 이벤트

우리은행은 오는 1월 31일까지 인터넷뱅킹 및 우리원뱅킹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해외송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을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비대면채널로 송금하는 개인 고객이 대상이며, 주요통화(USD·JPY·EUR) 최대 80%, 기타통화 최대 50%의 우대 환율을 제공한다. 또한 송금 금액에 따라 송금수수료를 우대 적용하고 전신료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급증빙서류미제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란 국민인 거주자가 연간 미화 5만불 이내에서 지급증빙서류 제출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정한 연도에 한해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매년



비대면채널 해외송금 이벤트 /우리은행

새롭게 지정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8일 “신년을 맞이해 해외송금이 필요한 고객이 우리은행 비대면 채널을 통해 송금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비대면채널을 통해 쉽게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해외송금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세무신고,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하세요”

IBK기업은행 ‘알파세무신고’ 출시

IBK기업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소상공인의 세무신고를 지원하는 ‘IBK 알파세무신고’ 서비스를 출시했다.

‘IBK 알파세무신고’ 서비스는 카드 매출, 계좌 거래내역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인공지능 기술로 세무장부를 자동 작성한다. 또한 원클릭 세무신고, 동일 업종 납부세율 비교, 부가세 예상액 추

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고객은 세무사 도움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장부 작성과 세무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교육,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기업은행은 ‘IBK 알파세무신고’를 출시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banking 서비스 ‘IBK 알파’ 시리즈의 라인업을 완성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혁신금융으로 인허가 규제 4년간 유예·면제

새 동력 찾는 보험·카드사... 신상품 대거 출시

(인슈어테크·송금·결제서비스 등)

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 77건 지정
보험·카드 분야 24건, 31.1% 달해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나서면서 저금리, 각종 규제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보험사, 카드사에게는 혁신금융서비스가 활로가 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 중 보험·카드 분야는 24건(31.1%)이다.

혁신금융 서비스는 새로운 서비스에 금융법상 인허가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유예하거나 면제해 자유로운 실험을 돕는 제도다.

보험 분야에서는 인슈어테크(InsurTech·보험과 첨단기술의 접목)를 활용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들이 출시됐다.

◆ 보험, 신상품 출시 기대

NH농협손해보험은 처음 가입 후 여행을 갈 때마다 설명의무와 공인인증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여행기간 설정과 보험료 결제만으로 가입 가능한 ‘온오프(On-Off) 해외여행자 보험’을 출시했다.

전원 스위치를 끄고 켜듯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온디맨드(on-demand) 방식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김희주 기자

적용한 것.

이어 NH농협손보는 지난해 18일 이베이코리아와 손을 잡고 ‘모바일 보험 상품권’을 출시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바일 보험 상품권을 직접 구입하거나 선물로 받은 소비자는 농협손보 모바일 앱과 웹에서 다이렉트 전용 보험 상품을 선택한 후 상품권 번호를 입력해 보험료를 결제하면 보험 가입이 완료된다.

스몰티켓의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는 반려동물의 건강진단과 펫보험 손해를 관리가 가능하다. 앞서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펫보험의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신상품 개발을 독려한 만큼 펫보험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페르소나시스템의 ‘AI인슈어런스 로보텔러’도 DB손해보험의 암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대상으로 올해 초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 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텔레마케팅(TM) 채널 모집의 전체 과정을 AI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

다.

이밖에 삼성화재의 ‘소액 기업성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민앤지 ‘위치정보 기반 레저보험’, 보합파트너·레이니스트의 ‘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올해 선보일 예정이다.

◆ 카드, 송금·결제서비스 다양

카드사들도 혁신금융서비스 활용에 적극적이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MY송금)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결제 자투리금액 투자 서비스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신용카드 월세 서비스 등 총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선정됐다. My송금(마이송금)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정식 출시됐다.

삼성카드는 오는 5월 ‘문자서비스(SMS) 인증 기반 간편 추심 이체 출금동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비씨카드는 ▲신용카드 기반 소액 송금서비스 ▲QR코드를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등을 준비 중이다.

KB국민카드도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시 포인트로 결제하는 서비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등급을 생성해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영세가 매장 매출대금을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출시 예정이다.

/김희주 기자 hj89@

미워도 다시 한번?... 증권사 추천 40%가 '왕서방 펀드'

최근 수익률 상위 1~4위 '中펀드' 中 자금 유동성 공급 확대 기대 미·중 통상마찰 완화도 긍정적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증권사들은 올해 추천 펀드에 중국주식펀드를 다수 넣었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미중간 통상 마찰도 완화되고 있어서다.

8일 펀드평가사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연 초 이후 증권사가 담은 새로운 추천펀드 10개 중 4개가 중국주식 펀드로 집계됐다. 정보기술(IT) 섹터를 중심으로한 글로벌 펀드 강세 속 중국 펀드의 약진이 눈에 띈다.

◆ '중국 펀드' 미운오리에서 백조로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은 올해 추천펀드에 중국 펀드를 새로 담았다. 중국 시장의 반등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실제 최근 한 달 수익률은 여타 펀드 수익률을 크게 앞선다. 신규 추천을 받은 10개 펀드 중 최근 1개월 수익률 상위 1위~4위 모두 중국 펀드가 차지했다. 특히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1월 증권사 신고 추천펀드 수익률〉

펀드명	유형명	운용사명	순자산	1개월	3개월	1년	2년
신한BNP차이나오퍼튜니티[자](H)(주식)(C-A-e)	중국주식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9	6.44	15.02	44.3	13.51
KTB중국1등주[자](주식)C-Ae	중국주식	KTB자산운용	343	5.93	10.36	35.86	5.71
미래에셋차이나본토[자]1(H)(주식)C-A	중국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43	5.88	7.82	54.33	12.31
한화차이나[자](주식-재간접)C-A-E	중국주식	한화자산운용	2	5.7	11.79	42.92	5.35
한화한국오퍼튜니티[자](주식)C-E	일반주식	한화자산운용	23	5.23	9.27	12.2	-0.54
교보약사로보테크[자]1(H)(주식)A	정보기술섹터	교보약사자산운용	294	4.14	13.02	33.48	7.46
한화글로벌헬스케어[자](주식)C-A	헬스케어섹터	한화자산운용	359	4.06	15.09	10.85	8.94
NH-AmundiAllset글로벌혁신기업[자](UH)(주식)Ce	글로벌주식	NH-아문디자산운용	1	3.84	6.87	41.51	
키움글로벌5G차세대네트워크[자](UH)(주식)A-e	글로벌주식	키움투자자산운용	15	3.61	8.59	45.52	
KB중소형주포커스[자](주식)A-E	중소형주식	KB자산운용	34	2.78	5.4	7.08	1.84

'신한BNP차이나오퍼튜니티[자](H)(주식)(C-A-e)'는 최근 한달 6.44%, 3개월 수익률 15.02%를 기록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차이나본토[자]1(H)(주식)C-A'의 경우 최근 1년 수익률이 54.33%에 달한다. 1년 전만 해도 중국 펀드는 애물단지였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우려와 그간 가파른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중국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이 평균 50%에 육박하는 가운데 최근 2년 수익률은 10% 수준이다. 2년 전 중국 펀드를 구매한 투자자는 이제야 10%

정도의 수익을 보고있다는 의미다. ◆ 중국 시장 '주목' 하지만 불과 1년 새 중국 펀드가 '환골탈태'했다. 최근 중국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IT기업의 활약도 기대되는 모양새다. 김선영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늘상 애물단지 같았던 중국에 희망이 보인다"면서 "미국과의 무역갈등으로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더 컸던 시장이었는데 1단계 합의 후 상황이 크게 반전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다. 중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

되고, 미·중간 통상 마찰이 화해를 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 6일 중국 시중은행들이 기준율을 0.5%포인트를 인하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약 8000억위안(약 135조원)의 자금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리커창 총리가 지난해 12월 선별적 기준율 인하 등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한 만큼 추가 인하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판단이다. 미·중간 통상 마찰도 완화되고 있다. 1단계 합의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주요 쟁점이었던 2단계에서는 기술이전, 지적권, 중국제조 2025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4일 중국 은행업보험업 관리감독위원회(은보감독위)에 따르면 70조위안(약 1경1805조원)에 달하는 중국의 가계 예금을 주식 펀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증시부양책도 펼치고 있어 중국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심에는 중국 IT 기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디지털을 중심으로 일대일로를 개척하고 있다. 다만 이것은 향후 미중 분쟁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중국은 디지털 일대일로에 대한 투자 조건으로 중국 공급업체의 독점적 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인력과 데이터, 관련 장비 사용 등이 모두 중국 위주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중국 은 일대일로 참가국에 화웨이 등의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진출해서 디지털 인프라를 공유하고, 미국 등은 중국의 제3세계 통신망 장악과 영향력 강화를 경계할 것으로 보여 향후 지속적인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목동 아파트 재건축 시동... 7단지 안전진단 신청 준비

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진단 신청비 모금활동 진행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목동7단지 아파트는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목동 6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5·9·11·12단지는 정밀안전진단 비용 납부를 완료했다. 목동7단지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이다. 7단지 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안전진단 신청을 위해선 2억~3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1억6000만 원을 모았다"며 "1월 중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7단지는 지난해 11월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결성됐으며 12월 재건축 준비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하며 재건축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정영우 기자

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했다. 1986년 준공된 이 단지는 총 2550가구로 구성됐다. 또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가운데 현재 가장 비싼 단지로도 알려졌다. 지난 12월 ▲전용 59㎡ 13억1000만원 ▲66㎡ 15억2000만원 ▲90㎡ 16억5000만원 등 최고가로 거래됐다.

이밖에도 목동 6단지는 지난해 7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비용 모금을 마치고 시기를 조율 중이던 목동 12단지는 최근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5단지는 지난해 11월 입주 공고를 냈으며 11단지는 이달 표본동을 선정할 예정이다. 4·7·8·10·14단지도 비용을 모금 중

이며 진단 보류된 13단지도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목동아파트 1~3단지 중 상향 문제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 지역은 기존 2중 일반주거지역에서 3중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됨에 따라 기본 용적률이 200%에서 250%로 늘어나 사업성이 확대된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이를 통과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총 5단계(A-E등급)이며, 이 중 A·B·C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최소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정영우 기자 ywj964@

미래에셋대우
다이렉트 신용융자 등 대출
내달까지 年 2.2% 이벤트

미래에셋대우는 '다이렉트 신용융자, 담보, 매도담보대출 연 2.20%' 이벤트를 다음달 말까지 진행한다. 이벤트는 다이렉트 신규 고객이거나 기존 고객 중 최근 6개월 내 신용융자, 담보대출, 매도담보대출 이용 내역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에 신청하면 신용융자, 담보대출, 매도담보대출 모두 연 2.20%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이자율 쿠폰을 제공한다. 혜택기간 종료 후에는 다이렉트 신용공여 기본이자율 연 9%로 적용된다. /송태화 기자 alvin@

현대차증권
최대 8.1% 제공 DLS 1종

현대차증권은 오는 10일 오후 1시까지 총 50억원 규모의 스텝다운형 파생결합증권(DLS) 상품 1종을 공모한다. '현대차증권 DLS 108호'는 서부텍 사스산원유(WTI) 최근월 선물과 브렌트유(Brent) 최근월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1.5년 만기의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이 상품은 6개월 단위 스텝다운 구조로 6개월마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0%(6개월), 85%(12개월) 이상이면 연 5.40%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만약 조기상환되지 않더라도 만기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80% 이상이거나 투자 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8.10%(연 5.40%)의 수익이 지급된다. /손엄지 기자

교보증권
상반기 공개채용 실시

교보증권은 본사 및 지점 지원 업무직(6급) 신입사원을 총 10명 내외로 공개채용한다. 지원자격은 전공제한이 없으며 고졸(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이상 학력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보충대상자, 장애인 및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 채용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실무면접, AI 인적성검사, 임원면접, 합격자 발표 순으로 지원서 접수는 '교보증권 채용사이트'에 접속해 진행하면 된다. 접수는 1월 8일부터 19일까지다. /손엄지 기자

금호·두산건설, 은평 '신사1구역' 재건축 경쟁치열

총 공사비, 제 경비 등 승패 작용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 사업을 놓고 두산건설과 금호건설의 경쟁이 치열하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업체가 총 공사비, 제 경비, 순 공사비 등 공사비를 다르게 제시해 승패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호건설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상태이고, 두산건설은 두산중공업에 흡수·합병됐다.



신사1구역 재건축 사업 조감도.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후 오는 11일 임시총회를 열어 신사1구역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총 공사비로 두산건설은 평당 439만

5000원, 금호건설은 449만원을 써 낸 바 있다. 두산건설이 금호건설에 비해 평당 9만5000원가량 낮게 총 공사비를 제안했다.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제 경비를 69만8000원, 순 공사비를 369만7000원으로 제시했다. 반면 금호건설은 제 경비 23만5450원, 순 공사비 425만4550원을 써냈다. 금호건설은 총 공사비 중 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경비로, 반면 두산건설은 총 공사비의 15.9%에 달하는 금액을 제 경비로 제시한 바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저금리·고령화, 질·효율 영업-신시장 개척으로 극복”

보험, 飛上 2020 전략



견실한 손익기반 확보 등 5대 목표 전년비 21.6% 감소... 2202억 순익 RPA 바탕 보험거래 디지털화 추진 해외사업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계획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삼성생명은 2020년을 위기 극복을 넘어 도전하고 혁신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잡았다.

향후 보험업계가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신사업, 신시장을 찾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생명은 올해 5대 목표로 ▲견실한 손익기반 확보 ▲‘질(質)과 효율’ 중심의 영업문화 ▲고객 만족과 상품채널 혁신 ▲신사업 발굴 및 신시장 개척 ▲법과 원칙 준수 등을 정했다.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은 8일 “보험산업의 위축과 사상 초유의 저금리 등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지난 몇 년간 상품, 채널, 고객, 원가, 조직문화와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6대 혁신을 추진하며 위기상황에 대응해 왔

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3분기 전년 동기(2807억원) 대비 21.6% 감소한 22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976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267억원) 대비 7499억원(43.4%) 줄었다. 다만 2018년 5월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7515억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들어 16억원 증가했다.

우선 삼성생명은 견실한 손익기반 확보를 위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글로벌 분산 투자와 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관 전경.

/메트로DB

전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는 원가 혁신을 통해 새로운 투자 여력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에는 양(量) 중심의 영업문화를 질(質)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삼성생명의 ‘질과 효율’ 중심의 영업은 저성장과 저금리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지속성장을 위한 목표이다.

일본의 주요 생보사들은 2000년대 초반의 위기 속에서 ‘질과 효율’을 강조해 강자의 지위를 굳건하게 지킨 사례가 있다. 삼성생명도 질적 성장을 통해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이다.

삼성생명은 고객 만족과 상품·채널

혁신을 통해 보험업계 최고의 시장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불편, 불만, 불친절이 없는 고객만족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치밀한 상품전략을 추구할 계획이다.

보험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삼성생명은 설계사들이 태블릿 PC를 활용해 영업하도록 하고, 단순업무 자동화하는 RPA를 바탕으로 보험거래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프로세스자동화)는 업무 과정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정형화해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술로 반복되는 단순업무를

효율화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올해 신사업 발굴과 신시장 개척도 게을리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외 스타트업과의 제휴, 투자를 통해 보험산업의 프로세스 혁신을 리드하고 신사업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삼성생명의 태국과 중국 해외사업은 안정적인 성장의 궤도에 들어섰지만 전략적 변화를 통해 해외사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997년 설립된 태국 현지의 합작법인 ‘다이삼성’은 2017년부터 2년 연속 흑자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또 해외 우량 생명보험사와 글로벌 자산운용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해 시장과 사회가 신뢰하는 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해 불법이나 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과 자원봉사도 더 늘려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김희주 기자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

한은-금융당국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하기로

한국은행이 미국과 이란 간 갈등 등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금융시장 일일점검반을 구성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한은은 8일 오후 윤면식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해 이란의 대(對)미 보복공격이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한은은 이날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 장 초반 추가,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이후 변동폭이 축소되면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윤 부총재는 “향후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면서도 “관련 이슈가 수시로 부각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융시장국과 국제국, 외자운용원, 국제경제부, 국외사무소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와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시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대 부총재보와 박종석 부총재보, 통화정책국장, 금융시장국장, 국제국장, 공보관, 국제경제부장, 투자운용부장, 자본시장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이날 긴급 금융시장점검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금융시장 일일점검반을 구성·가동한 바 있다. 중동 불안과 관련한 국제정세와 국내의 금융시장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운용 중이다.

금융당국은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시장안정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김희주 기자

대형 저축銀 순익, 지방銀 수준 버금



부실자산 매각 등 이익 증가 영향

SBI저축銀, 누적순익 1562억 웰컴저축 814억, OK저축 747억 순익

SBI저축은행이 지방은행과 견줄 정도로 순이익을 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부실자산 매각에 따라 이익이 늘어났고, 중금리대출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중금리대출이 확대되면서 상위 저축은행이 하위 지방은행과의 순이익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SBI저축은행 경영공시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1562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북은행이 벌어들인 순이익 957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순이익이 높은 부산은행이 3559억원을 기록했고 대구은행 3046억원, 경남은행 1626억원, 광주은행 139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들의 실적도 견줄 만했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에 이어 웰컴저축은행이 814억원, OK저축은행은 747억원의 순이익을 각각 올렸다.

즉 상위 지방은행 일부를 제외하고 순이익만 따져볼 경우 상위 저축은행들이 일부 지방은행의 순이익을 따라잡고 있는 모양새다. 총 자산으로 따졌을 때 저축은행보다 지방은행이 두 배 이상 규모가 큰 것을 감안, 저축은행의 실적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저축은행의 수익은 중금리대출 효과가 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개인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량규제를 도입했는데 이 규제에서 낮은 금리대출을 제공하도록 도입된 중금리대출만 제외됐다.

실제 저축은행 각 사 경영공시를 살펴보면 개인·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지난 3분기 SBI저축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49.63%, 가계대출 비중은 50.35%다. 기타 대출까지 포함하면 총 대출금은 6조8223억원에 달

한다.

하지만 올해도 상위 저축은행들이 지방은행과 견줄만한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과 달리 올해는 저축은행의 수익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가계대출총량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대율 규제 등으로 저축은행에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주요 수익 사업인 중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P2P금융, 카드사, 인터넷 전문은행 등도 관련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반면 업계간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경제성장률도 좋지 않고 저금리 기조도 장기화되는 등 저축은행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는 각종 규제도입 영향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지난해 정도의 실적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현대해상 임신 등 위험 보장 ‘굿앤굿어린이보험’

현대해상은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증가된 임신·출산 관련 위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다발성 소아암, 4대 장애, 양성뇌종양 등 어린이 중병을 비롯해 자녀배상책임, 시력교정, 비염, 아토피 등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어린이보험에서 면책에 해당돼 보장되지 않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상해수술, 선천성 뇌질환으로 인한 질병입원, 응급실내원진료비 등도 보장한다. 선천이상으로 인한 보장 공백을 없앤 것이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원형탈모증, 특정 언어장애, 말더듬증에 대한 보장을 신설했다.

/김희주 기자

2020년 새해에도
 가족의 건강은 베콤씨로!
 한 끼의 완성
베콤·씨[®] 정

육체피로 | 신경통 | 눈의피로 | 기미·주근깨



수수료 저렴
1주내 결제

파트너사 지원,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위메프의 상생경영, 협력사와 MD에 듣는다

중소파트너사와 상생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대폭 늘린 기업이 있다. 바로 위메프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부터 '신규 파트너사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판매수수료 4% 적용 ▲서버비 면제(월 9만9000원) ▲1주 정산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노출 지원 등 4대 주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 그 결과 2달간 신규 파트너사는 6100곳을 돌파했으며 월 거래액 기준 1000만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파트너사만 77곳에 달한다. 1억원 매출을 기록한 파트너사도 6곳이다.

우수 신규 파트너사 TOP5에 등극한 제주 신선식품 판매기업 부용유통(제라한감귤) 김성배 대표와 위메프 안다



부용유통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라한 감귤 /부용유통

위메프, 신규 파트너사 지원 실시
월 거래액 1000만원 ↑파트사 77곳

“수수료·주정산, 매출에 큰 도움”

홍MD를 만났다.

부용유통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농수산물 도소매업체로 제주 감귤 및 각종 국내산 과일과 수입과일을 전문적으로 유통한다. 그동안 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공판장 및 마트 등으로 납품을 해오다가 지난해부터 온라인 유통을 확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겠다고 마음 먹은 시점부터 위메프를 염두에 두고 파트너사로 참여했다”며 “중요 위메프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했는데 이미지가 좋았다”고 위메프와 거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위메프의 신규 파트너사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매출이 크게 올랐다. 특히 ‘수수료’와 ‘주정산’이 크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신규 파트너사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정산인 것 같아요. 많이 팔려도 정산주기가 길어지게 되면 자금 순환이



김성배 부용유통 대표(왼쪽)와 안다홍 MD(오른쪽)가 '우수 신규 파트너사' 상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안되기 때문에 업체를 운영하기 힘들죠. 그런데 위메프는 1주 단위로 정산을 빠르게 해줘서 정산 걱정 없이 회사 운영에만 신경 쓸 수 있어서 좋았어요.”

부용유통의 업무를 지원한 위메프 안다홍 MD가 가장 크게 신경 쓴 건 가격 책정이었다. 감귤 업체가 워낙 많다보니 기존에도 가격 경쟁이 치열한데, 그보다 더 저렴한 최저가로 가격을 형성해야 하는 상황이 미안했을 정도라고.

“신규 파트너사를 발굴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첫번째는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점, 두번째가 위메프와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에요. 부용유통은 제품도 물론 좋지만 함께 특기회전을 해보려고 제안했을 때 흔쾌히 수락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이) 가능했죠. 솔직히 최저가로 판매하자고 제안드리기가 미안할 정도로 저렴하게 판매했거든요.(웃음)”

김 대표는 “말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했기 때문에 일부 판매자들은 ‘다같이 망하지는 않냐’고도 했다”며 “하지만, 기획전에 노출이 되려면 최저가로 가격을 형성해야 했기 때문에 가격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속상한 점이라면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배송 과정에서 과일에 상처가 나거나 멍드는 경우가 있다”며 “상품 상세설명에 이런 부분을 적어놨지만, 보시지도 않고 ‘제품이 안좋다’고 평가하시는 고객이 더러 계셨다. 그럴 때 속상했다”고 토로했다.

부용유통은 앞으로도 위메프를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과일을 판매할 계획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신 수량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하겠다는 것.

“박리다매로 많이 팔게 되면 물류비나 부자재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또 다시 가격대를 낮춰서 더 많이 팔고... 이러한 전략으로 위메프와 함께 가려고요.”

한편, 위메프는 올해 1월까지 운영 예정이던 신규 파트너사 지원 프로그램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상품 등록 플랫폼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다. 다른 이커머스 쇼핑사 양식 호환 등록 기능을 강화, 호환 대상 사이트를 기존 1개에서 2개로 추가해 운영한다. 이들 이커머스에 상품을 등록한 판매자는 해당 양식을 복사해 위메프 시스템에 그대로 붙여 넣기만 해도 위메프에서 상품을 등록, 판매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에이티패치(ATP-C120) 독점 판매 계약 체결 조인식
2020년 1월 07일(수) 이마켓코리아 본사 대회의실
에이마켓코리아 (왼쪽 4번째부터) 남인봉 대표와 에이티센스 정종욱 대표 등 관계자들이 독점 판매 계약 체결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이마켓코리아

에이마켓코리아, 전문 의료기기 시장 진출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기업 에이마켓코리아(IMK)가 전문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 진출했다.

에이마켓코리아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에이티센스와 패치형 심전도 측정기인 에이티패치(ATP-C120)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에이마켓코리아가 독점적으로 유통하게 될 에이티패치는 부정맥과 같은

심장질환의 진단과 예방을 위해 순수 국내 기술로 상용화된 초소형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다.

이 제품은 최장 11일 동안 작동해 24~48시간 동안 착용하는 기존 홀터 심전도 기기보다 부정맥 발견 가능성을 크게 높였고, 무게도 13g에 불과해 500g이 넘는 기존 기기에 비해 50배 정도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셀리턴 LED 모듈, 美·日서 특허 취득

피부 탄력 회복 등 유효과장 출력

셀리턴은 미국과 일본에서 자사 LED(발광다이오드) 뷰티 기기에 적용된 '유효과장 출력 촉진'을 위한 LED 모듈 해외 특허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셀리턴이 해외 특허를 획득한 LED 모듈은 유해한 전자파를 흡수하는 이중 흡수층으로 구성돼 피부에 피지 개선,

피부 탄력 회복 등 유익한 유효과장의 출력을 촉진한다. LED 마스크의 품질과 효과를 높이는 핵심 부품으로, 셀리턴(사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LED 마스크 유효과장과 관련한 특허를 획득한 기업이다. /배한님 기자



중기부 “中企 수출 확장에 2000억 투입”

해외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설치
한류 마케팅 고도화·마케팅 사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한류 마케팅 고도화하고 해외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설치하는 등 2000억원을 투입해 해외 마케팅 사업을 실시한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동반진출·수출바우처·수출컨소시엄·전자상거래활용수출·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등 내용이 담긴 '2020년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공고문'을 8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중기부는 총 1985억원 규모로 1만2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이번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의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 이는 지난해 다소 둔화된 중소기업 수출 분위기를 반전하고 수출 회복세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함이다.

다.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은 한류마케팅 확대 및 고도화, 시장별 온라인수출 지원 다양화, KSC 설치, 혁신바우처 도입 등 정책환경과 연계수요를 반영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한류를 이용한 마케팅 고도화로 해외판로 개척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공동으로 KCON 러시아와 미니 KCON 등 글로벌 한류 행사를 확대 개최한다. 아울러 한류 행사와 브랜드K 등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판촉 상담 행사도 연계한다. 기획 단계부터 특정 중소기업제품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브랜드드 콘텐츠도 지원한다.

주요 수출 국가뿐만 아니라 신남방 국가와 중동 등 다변화한 시장별로 온라인수출 지원도 펼친다. 미국·중국·일본 3개국에 집중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태국·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와 인도·터키·UAE 등 한류 확산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소비재 전문 온라인쇼핑몰 육성을 위해 기업별로 4000만원을 일괄 지원하던 것을 역량별로 차등을 두고 최대 1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KSC 설치와 스타트업 전용 수출바우처는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미국 시애틀 등 3개소를 연 데 이어, 올해는 80억원을 투입해 스웨덴·핀란드·싱가포르 등에 KSC를 추가한다. KSC를 통해 해외 현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결해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스타트업 전용 수출바우처는 해외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과의 매칭 기회 등을 제공한다. 동일·유사·업종 기업 간 해외시장 공동개척을 돕는 수출 컨소시엄 사업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스타트업 컨소시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테팔 “올해 주방·가전 트렌드는 ‘S·E·N·S·E’”

(빠름·쉬운·새로운·간단한·친환경)

테팔은 8월 2020 주방용품·가전 트렌드 키워드로 '센스(S·E·N·S·E)'를 제시했다. 센스는 빠른(Speedy)·쉬운(Easy)·새로운(New)·간단한(Simple)·친환경적인(Eco-friendly)을 뜻한다.

'빠른(Speedy)'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퇴근 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여가 생활을 즐기

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선정된 키워드다.

'쉬운(Easy)'은 요리 프로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요리 열풍이 지속되면서,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인기를 얻고 있어 뽑혔다.

'새로운(New)'은 나만의 취향과 개성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기성제품과는

차별화된 혁신적인 기능을 갖춘 제품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선택됐다.

'간단한(Simple)'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실용적인 삶을 추구하는 미니멀 라이프 트렌드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선정됐다.

'친환경적인(Eco-friendly)'은 환경을 생각해 생활 속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트렌드로 떠올랐다.

/배한님 기자

윤건영 등 文 복심 잇단출마... ‘靑 총선’ 논란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 MB
檢,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

윤 전 실장, 서울 구로구를 출마 유력
일각서 靑인사 70여명 출마 전망
대변인 “프레임 만들기 위한 것
출마자, 지난여름 이미 정리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6일 청와대 개편 관련 발표를 위해 춘추관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초반 레이스를 규정하는 화두로 ‘청와대 총선’이라는 말이 정계에서 증폭되는 모양새다. 당초 여권에서는 집권 중 치러지는 선거에서 ‘청와대 출신’의 출마 리스가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다가올 총선에서는 ‘청와대 총선’이 다른 변수를 초반부터 압도하며 주요 선거 이슈로 부상했다.

정기희상황실장이다. 윤 전 실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났다. 그는 서울 구로구를 지역구에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당선된 직후 초대 실장으로 발탁됐다. 그는 청와대에서 상당한 활약상을

보였다. 특히 현 정부에서 진행된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정평이 났다. 작년 10월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 모친 강만옥 여사를 추모하기 위해 보낸 조의문을 판문점에서 직접 받은 이도 윤 전 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전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인사 약 70명’이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서 지역야권에서는 “청와대 인사들의 총선 출마는 바보들의 행진과 다를 없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70명이 넘는 청와대 인사들이 4월 총선에 뛰어들었다고 한다”며 “청와대 인사들이 출마 목적으로 잇따라 사퇴하면서 청와대가 인사 소용돌이에 빠졌다”고 이렇게 비판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여권 안팎에서도

고개를 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70명 정도의 청와대 인사들이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는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수치상 70명이라는 인원은 절대 적은 인원이 아니다. 이 경우, 당연히 당청간 지역구 교통정리가 수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실장의 거취가 대표적이지 않나”라며 “윤 전 실장을 둘러싼 총선 출마 지역구로는 서울 구로구를 비롯해 경기 부천, 경남 양산 등이 거론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러한 뒷말을 인지하고 수습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 중인 청와대 총선 관련 프레임은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가진 분들은 지난 여름에 다들 입장을 밝혀서 정리 가 다 된 바다”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수백억원대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먼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원 등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구형을 둘로 나눠 한 것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석대성기자

野 “靑文 총선활동 우려” 丁 “탈당 안해”

與野, 오늘부터 민생·경제법안 처리 나서

정세균 인사청문회 2라운드
포스코 사옥 매각개입 의혹 등 쟁점 야권, 결정적 하자·위법성 못찾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차전에 돌입한 여야는 후보자 정책능력과 비위 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일에 이어 8일 오전부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떠오른 쟁점은 ▲정 후보자의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개입 의혹 ▲화성시 택지개발 사업에서의 측근 특혜를 위한 외압 행사 의혹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소득 대비 과다 지출 및 탈세 의혹 ▲지인·지지단체 특혜 의혹 ▲삼권분립 훼손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중립성 침해 우려 등이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4년 송도사옥 지분을 보유한 사업가이자 정 후보자 지역구민 박도씨가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정치인에게 청탁했고, 정 후보자는 포스코를 압박해 단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사람이 ‘4300억원에 내 땅을 팔 수 있는데 3000억원에 팔려서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정 후보자가) 잘 따져보라고 얘기한 것을 청탁이라고 한 것”이라며 “잘못된 것은 잘 따져봐 달라고 말하는 게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한국당 간사 김상훈 의원이 전날에 이어 정 후보자 측근이 경기도 화성도시공사로부터 특혜성 택지공급을 받았고, 정 후보자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기

가 막힌다”며 “김 의원에게 유감을 표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전날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자 “아무리 후보자라고 하지만 24년간 정치하며 이런 모욕적 말씀은 처음 듣는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경우 “일각에서 후보자가 친문(문재인 계파) 세력의 오랜 동맹군으로 친문의 총선 승리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민주당 탈당 의사를 물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탈당하고 싶지 않다”고 일축했고, 국회의원 간 후원이 품앗이 성격을 띠고 있던 지적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허용 한도 내에서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에는 증인을 불러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능력 검증에 나섰다. 야당 입장에서 결정적인 하자나 위법성을 찾기 못했다.
한편 국무총리 임명 최종 단계인 국회 본회의 동의안 표결은 다음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직 이낙연 총리가 4월 15일 총선에 출마하려면 오는 16일 전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패스트트랙 쟁점 파행 변수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잠시 숨을 고른 정치권이 9일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나선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 개최에 청신호가 들어왔지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파행 변수로 남아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민생법안에 걸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결단으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국민에게 박수를 받았다”며 “민생법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신속하게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17개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 2건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대해선 철회 여부에 확답을 주지 않았다.
한국당은 이번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비쟁점 법안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운데), 김재원 정책위의장(왼쪽),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서 재계와 금융계 숙원인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데이터 3법은 전세계가 경쟁 중인 4차산업 개발·발전에 뛰어가기 위한 필수 법안으로 꼽힌다. /석대성 기자

국방부장관, 24개 방산업체 CEO와 교류

“올 방위산업에 예산 7278억 편성”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방산업체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과 박재민 차관,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비롯해 24개 방산업체가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방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장관

이 방산업체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2018년 12월 최초로 개최한 이래 이번이 세 번째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ADEX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방산업체의 높은 기술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며 “방위산업이 반도체, 조선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뜻깊은 한 해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에는 국내 방위산업의 잠재

력을 제고하기 위해 7278억원의 ‘핵심 기술개발 및 연구 인프라 보강예산’을 편성하고, ‘방위산업 육성예산’을 작년 대비 69.3% 증액해 부품국산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형’이라 불리는 국산화에 역점을 뒀지만, 무리한 국산화는 군수품의 신뢰성과 성능의 저하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방위사업 추진여건 및 애로사항과 관련된 토론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24개 업체에서 20여건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문형철 기자

병역명문가 신청때 독립유공자 가문 포함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접수를 받는 올해 병역명문가 신청에 독립유공자가 가문도 포함된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삼촌, 본인과 형제, 사촌 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이다.
병무청은 8일 “올해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승전 100주년을 맞아 애제국정기 독립군 활동 등 독립유공자 가문을 새롭게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 포함했다”며 이같이 밝

혔다.
올해가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과 한국전쟁(6.25) 발발 70년을 맞이할 것과 관련해 병무청은 한국광복군 및 참전유공자 등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재한다. /문형철 기자 captinm@

학종 여전히 대세... '재수생·정시비중·선발인원' 변수로

2021학년도 수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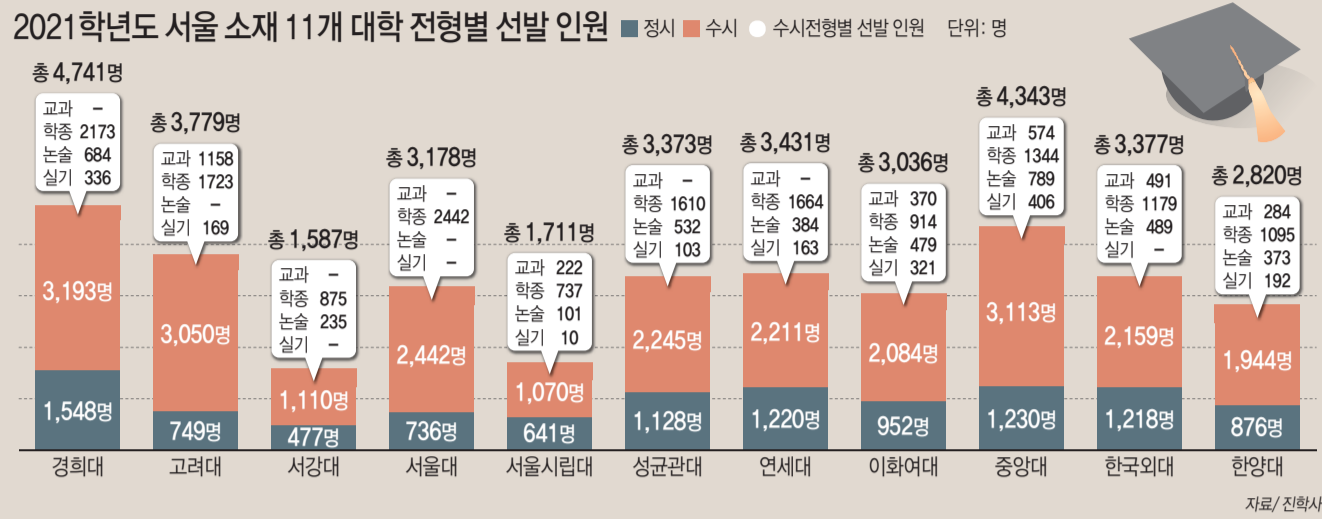
서울 11개 대학 정시 비율 5.2% ↑ 수능 재수생 응시비율 11년 중 최고 정시모집·수시전형 함께 준비해야

올해 고3이 치르는 2021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입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위주 정시모집 비중이 소폭 증가하지만, 여전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대세다. 수능은 2015개정교육과정(적용)에 다소 변화가 있고, 정시모집 선발 인원 증가 등 변수가 적지 않아 앞서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대학마다 모집단위마다 소폭 변화하는 선발방식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8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1학년도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서울 소재 11개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은 30.4%(1만775명)로 전년 정시보다 5.2%(531명) 증가했다.

이들 대학 중 성균관대와 한국외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이 정시 선발인원을 늘렸다. 이화여대가 전년보다 169명 더 선발해 가장 증가 인원이 많다.

정시 선발 인원이 증가했지만 정시모집에만 올인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



다. 일반적으로 수능에 강세를 보이는 재수생 이상 졸업생 비율이 올라갈 수 있어서다. 때문에 수시전형 준비도 함께 해야 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0년~2019년까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입학자 중 재수생 비율은 16.3%에서 21.5%로 증가 추세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의 재수생 입학자 비율은 28.4%에서 지난해 신입생 10명 중 3명 이상(31.0%)으로 증가했다.

수능 지원자 가운데 졸업생 이상 비율은 2020학년도 25.9%로 최근 11년간 가장 높았다.

올해 대학 입학자 중 재수생 비율은 2020 수능 재수생 지원자(25.9%, 전년

대비 3.1%p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전국 단위로는 20% 초반, 서울 소재 대학 기준으로는 30% 초반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도 학령인구 감소와 최근 재수 추이까지 종합 고려하면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재수생은 12~13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11개 대학의 2021학년도 대입도 학종 선발인원이 44.5%(1만 5756명)로 여전히 가장 많다.

논술전형은 서강대를 제외한 8개 논술 실시대학이 선발인원을 줄였다. 그중 연세대가 전년도 논술 선발 인원 중 약 37%(223명)을 줄여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어 서울시립대는 전년 대비 28.9%, 이화여대는 11.8% 줄어 뺏는다.

교과전형은 고려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에서만 실시하고, 고려대, 이화여대 교과전형과 중앙대 학교장추천전형은 추천을 받은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별 바뀐 선발 계획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경희대의 경우 정시 선발을 늘리는 대신 고교연계전형과 논술전형 인원은 줄였다. 수시전형에서는 논술전형에서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했다. 2019학년도 논술 지원자 중 최저학력기준 충족 비율은 42.1%로 선호도와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비율은 대체로 비례한다.

고려대는 변화가 가장 큰 대학이다. 학생부교과 선발인원을 대폭 늘렸고,

추천받은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 제한을 완화했다. 전형방식도 기존 1단계 통과 학생에게만 부여하던 면접기회를 지원자 모두에게 부여하고, 서류평가 20%를 반영한다. 특히 고려대 학종 계열적합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학생부, 자소서 등의 서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수시모집 전부를 학종으로 뽑고, 수능100% 정시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52명 더 뽑는다.

서울시립대 정시모집 선발 비율은 37.5%로 높은 수준이고, 논술전형의 경우 전년 단계별 전형 선발에서 올해 일괄합산전형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교과 성적 반영 방식도 기존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활용 방식에서 등급 반영으로 단순화했다.

한국외대의 경우 서울과 글로벌캠퍼스 합산 수시모집으로 63.9%를 뽑고, 정시모집 비율은 36.1%이다. 수시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2020학년도에 폐지했던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다시 도입한 것이다. 교과 성적도 기존 성적만 반영하던 것에서 출결과 봉사까지 함께 반영한다. 정시모집에서는 인문계열 수능 영어 반영비율을 15%에서 20%로 높였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국교총 신년교례회

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교총 신년교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손진영 기자 son@

초등 방과후돌봄 대상 30만 4000명으로 확대

“신학기 전 돌봄교실 확충·환경개선 추진”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안 발표 KB금융 기부금 지원, 리모델링 병행

올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대상 학생이 30만4000명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하는 등 '2020학년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초등 돌봄교실은 방과후 돌봄을 원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 등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월말 기준 6117개 초등학교(1만3910실)에서 29만여명의 학생이 이용했다.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올해는 전년보다 대상자가 1만4000명 증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신학기 시작 전 겨울방학



대구 속천초 돌봄교실 확충·환경개선 사례

/교육부

기간에 돌봄교실을 집중 확충하고, 석면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학교도 대체교실 등을 이용해 돌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활용해 겸용교실을 전용으로 전환(136실)하거

나 노후 돌봄교실을 리모델링(1503실)하는 등 총 1700여실의 돌봄교실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KB금융그룹 기부금으로 125개교 224실이 혁신적 리모델링이 병행 추진된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세종대 미래교육원

15일 부동산 재테크 특강

세종대학교는 미래교육원이 오는 15일 오후 6시 30분 세종대학교 대양 AI 센터 B107에서 '2020년 부동산 마인더스 아카데미 론칭기념 특별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동산 재테크 특강으로 진행되며, 2020년 부동산 분야에서의 재테크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자문위원 박원갑 강사는 2020년도 변경된 부동산 정책 및 유망 투자처 분석 등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지앤비 자산운용 대표 문동진 강사는 정책변경에 따른 경매시장 공략법 및 돈 되는 특수경매 분석 등을 안내한다. /한용수 기자

성균관대

'경영대학동문상' 수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동문문화(회장 김동필/ ㈜넥스팜 코리아 회장)는 8일 오후 웨라투스호텔플래츠강남 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제10회 자랑스러운 경영대학동문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자랑스러운 경영대학동문상'은 모교와 경영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동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이용국(㈜신원헬트 회장, 전용주(㈜해시스냅 회장) 2명이다. /한용수 기자



전용주 해시스냅 회장, 이용국 신원헬트 회장

경희사이버대, 10일 신·편입생 모집 마감

전체 재학생 중 79% 장학 혜택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10일 마감한다. 앞서 경희사이버대는 인공지능, 초연결사회 등 문명의 대전환기 변화를 이끌어갈 전공 개설을 목표로 7개 학과(전공) 신설 및 개편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2020학년도부터 기존 관광레저항공영

영학과를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로 개편하고 관광레저경영전공과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을 신설 및 개편했다.

수능,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자기소개(80%)와 인성검사(20%)로 선발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

하거나 졸업한 자는 2·3학년 편입학도 가능하다. 졸업 시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4년제 정규 학사학위가 수여된다.

전체 재학생 중 약 79%는 장학 혜택을 받는다. 직장인, 전업주부, 학사편입자, 농어민, 외국어우수자, 스포츠인재, 군·경·소방가족, 경희동문, 다문화, 후마니타스, 음악인재를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장학혜택을 마련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한용수 기자

시작됐다! 진짜 청라가

청라의 가치는 국제업무단지! 선택의 기준은 큐브 시그니처 1015!

12.16 직격탄 비켜간 오피스텔, 반사이익 기대감 상승!



3,400만원 투자시
월 65만원 임대수익

- 7호선 연장
- 커널웨이 호수공원 앞
- 10년 임대보장
- 중부세 無 2주택해당 無 전매제한 無
- 중도금 무이자

청라 국제업무단지 큐브 시그니처 1015 오피스텔, 상가 모집공고!

1. 분양신고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2019-청라관리과-분양신고-12 (2019년 12월 27일)]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2019-청라관리과-신축허가-97]

2. 공급규모 (분양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5-1 외 2필지)

공급규모	대지면적	연면적	지상연면적	용적률
오피스텔, 근생 총 1,015실	6,084.90㎡	33,572.52㎡	50,387.77㎡	827.64%

3. 층별구성

층별	구성	용도
옥상층	휴식공간	입주민 휴식공간
지상 5~23층	오피스텔	오피스텔
지상 2~4층	업무지원시설	섹션오피스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로비 &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지하 6층	주차장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4. 공급내용(오피스텔)

타입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대지비율
A	26.84㎡	14.64㎡	1.93㎡	22.24㎡	65.65㎡	4.82㎡
B	33.58㎡	17.42㎡	2.41㎡	27.83㎡	81.24㎡	6.03㎡
C	34.59㎡	18.60㎡	2.48㎡	28.67㎡	84.34㎡	6.21㎡
D	34.59㎡	18.60㎡	2.48㎡	28.67㎡	84.34㎡	6.21㎡

5.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본인 및 가족 중 소득증명(근로 및 사업소득세 등의 납세증명원)이 가능한 자

6. 신청장소 및 방법

- 신청장소: 분양홍보관
- 신청방법: 신청접수한 고객에게 정상 접수완료 통보 후 희망호수 접수

7. 계약시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배우자포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 재외동포 - 국내거소 신고증 1부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1부
- 대리인 신청시
 -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계약자의 인장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및 인장

8. 신청금 입금계좌

납부금액	오피스텔: 금일백만원(1,000,000원) / 근린생활시설: 금오백만원(5,000,000원)		
예금주	주식회사 태릉건설	은행 및 계좌	농협은행: 301-0262-9243-31

* 이계약시 전액 환불

9. 사업관계사명칭

시행사공사	(주)태릉건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별말로 126, 오비트타워 1211, 1212, 1213호
분양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18층(여의도동, 케이티비빌딩)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서양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에 사용된 CG는 스폰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건물 크기, 위치 등은 실제보다 크거나 가깝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행사 (주)태릉건설 | HUG | NH농협은행 | 청라 국제업무단지 매머드급 규모 | 총 1,015실(65.65㎡~102.60㎡)

- 전용면적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선(건축지수)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에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모두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지방세 등은 미포함입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용면적으로 하여,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1522-0119

경기도 부천시 삼곡동 172-15, 1층(부천역 바로 앞)



Partners ▶ 코오롱사회봉사단



코오롱그룹 신입사원 ‘드럼팩 기부천사 캠페인’
코오롱그룹 신입사원들이 봉사활동으로 임무를 시작했다. 코오롱그룹은 8일 경기 용인 코오롱인재개발센터에서 ‘드럼팩 기부천사 캠페인’을 열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코오롱사회봉사단이 국제구조 비정부기구 기아대책과 함께 신학기 용품 키트를 제작해 저소득층에 기부하는 행사다. /코오롱그룹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전국 돌며 현장 목소리 청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1일 까지 전국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연두업무보고회 및 일선 현장 직원들과 사랑방 정담회를 갖는다고 8일 밝혔다. 연두업무보고는 본부장 및 지사장 등 간부직원들이 참석해 새해 지역본부의 현안사항 및 특화사업 등을 보고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맨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8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현장 직원과의 정담회 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보공



신한PWM, 프로골퍼 이정은·김자영 선수와 후원 협약
신한금융그룹의 자산관리 브랜드인 신한PWM은 8일 서울 중구 신한PWM 서울프리빌리지센터에서 프로골퍼 이정은, 김자영 선수와 브랜드 홍보 및 선수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정은, 김자영 선수는 이번 시즌 동안 신한PWM 로고가 표기된 의류를 착용하고 경기에 나서고, 고객초청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신한 PWM의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정은(6인칭에서 첫번째)과 김자영(세번째) 선수가 신한 금융그룹 왕미화 WM부문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중진공, 한중 왕홍 합동 라이브 판매전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제주도에서 ‘한·중 왕홍 합동 Live 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동 Live 판매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직접 양성한 ‘한국형 왕홍’ 26명과 중국 왕홍 7명이 함께 진행하며, 이틀간 19시~24시에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를 통해 방송된다. 지난해 광군절을 맞아 한국 화장품과 식품 방송판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형 왕홍들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중진공



교원그룹, 광고에 ‘키즈라운지’ 1호점 오픈
교원그룹은 경기 광고에 고객 친화형 체험센터인 ‘KIDS Lounge’(키즈라운지) 1호점을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키즈라운지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독서, 클래스, 에듀테크 학습 프로그램 등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교원그룹

‘정의선의 혁신’ 성공하려면



윤 위 중의
잠시 쉼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부터 현대차그룹이 확실히 달라졌다. 이전과 달리 시대 변화를 읽고 대응하는 민첩성이 눈에 띈다. 변화에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맞게 변화를 주도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책임감이 수반되는 ‘오너 경영’의 결과물이 부쩍 많아졌다. 과감한 투자와 유망기업 인수 등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9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이 공동출자해 미국 애플티브테크놀로지스와 40억달러 규모의 자율주행합작사(JV)를 설립키로 한 것도 오너의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현대차그룹의 변화는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소비자가전쇼(CES) 2020’에서도 확연히 읽을 수 있다. 이번 CES 2020에서 현대차그룹이 공개한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비전은 과거 현대차의 관성이나 고정관념으로 보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파격과 혁신을 갖췄다. 도심에서 교통체증을 피해 수직이착륙하는 ‘S-A1’이라는 개인용 비행체(PAV)의 등장도 충격적이지만, 지상

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그들을 연결하는 허브(환승 거점)을 만드는 구상을 보여줬다. 미래 모빌리티가 도대체 뭔가 하는 막연함을 단번에 해소시켜줬다는 평가다. 특히 개인용 비행체는 그저 모형을 전시한 게 아니라 상용 제품에 가까운 실물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고 한다.

현대차는 세계 최대 카셰어링 업체인 우버와도 자동차 업계 처음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현대차가 PAV를 개발하고, 우버는 항공 승차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들에게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9월 UAM 사업부를 신설하고 도심항공부문의 영향력 있는 인물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 신재원 항공연구총괄본부장을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개인비행체를 연구·개발하는 곳이 자동차 업체들을 비롯해 유명 자동차 회사를 비롯해 10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한다. 현대차만 미래 모빌리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현대차그룹은 국내 제2위 기업이고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는 자동차 업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버와는 경쟁사들보다 먼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발빠름

도 보여줬다. 도요타, 폴크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경쟁한 글로벌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래 이동수단이란 신시장에서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런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혁신은 혼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을 사회적으로 공감해야 한다. 공중에 떠 다니는 비행체가 등장한다는 소식이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음주 비행하면 어떻게 하나, 비행 중에 아파트와 충돌하면 누가 책임지나 등등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 비근한 예로, 자율주행차의 운행사고 발생 책임을 놓고 제조사-보험사-소비자간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비행체까지 등장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체 사회가 미래 사회의 도래에 대비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옆나라 일본은 개인비행체의 등장에 대비해 이미 보험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기술은 몰라도 보험은 일본이 앞선 것이다.

보험뿐 아니라 시설물이 들어설 위치, 각종 법과 규제 등등 기술의 혁신에 부응할 ‘마인드의 혁신’을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롯데월드 어드벤처,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지원

‘1989년 동전우대’ 행사 기부금 등 백혈병소아암협회에 2000만원 전달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2020년 경자년을 뜻깊게 시작했다.

롯데월드는 지난해 진행한 ‘1989년 동전우대’ 행사 기부금과 임직원이 참여한 ‘드림업 기부데이’ 기부금 등 총 2000만원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2015년부터 진행한 ‘드림업 기부데이’는 한 달에 한 번, 사내식당의 반찬 비용을 줄인 ‘기부메뉴’로 식사한 임직원들의 인원만큼 기금이 마련되는 롯데월드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회사 역시 동일한 금액을 함께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드림업 기부데이’ 기부금을 전달했다.

/롯데월드

작년 한 해 동안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500만원의 기부금이 모여지며 여기에 손님들이 동전우대로 기

부한 500만원을 더해 소아암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민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인사

- ◆기획재정부 ◇국장급 △관세정책관 주태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이사관 전보 △기획조정관 인니 수도권전 협력팀장 최형욱 △도시계획국 도시정책과장 홍순민 ◇직위 승진 △공공건축추진단 공공시설건축과장 최병성
- ◆충남지방경찰청 ◇경정 승진 △지방청 정보화장비 송영창 △지방청 112종합상황실 전철표 △논산시 정보보안 유병익 △지방청 과학수사 김경환 ◇경감 승진 △서산시 경무 문제현 △당진서 청문감사관실 교체철 △부여서 정보보안 이종구 △홍성서 경무 김희환 △지방청 정보 김환 △청양서 생활안전교통 윤창훈 △아

산서 보안 허세만 △천안서북서 생활안전 권희석 △천안동남서 경무 정용 △지방청 경비교통 김택환 △예산서 경무 장기섭 △공주서 경비교통 김상운 △지방청 과학수사 김재국 △지방청 경무 김선욱 △지방청 수사 류기운 △금산서 정보보안 홍성천 △지방청 생활안전 이상수 △보령서 경무 이수범 △지방청 형사 강환구 △태안서 정보보안 장세용 △천안서북서 형사 오현숙

◆서울미디어그룹 ◇이뉴스투데이 △광고국 부국장 이종은

부음

▲박상서씨 별세, 배용준(신한금융투자 신한PWMM도곡센터장)씨 장인상=7일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9일. 02-2258-5940

▲강옥구씨 별세, 김상현(우진메트로 기술실장)·종현(연합뉴스 경제담당 논설위원)·대현(금강래미콘 차장)씨 모친상=8일 충북 제천 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9시. 043-644-4422

▲전수자씨 별세, 한필상(농구전문 월간지 점프볼 취재팀장)씨 모친상=8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서울성모장례식장 22호실(9일 21호실로 변경 예정), 발인 10일 오전 10시. 02-2258-5940

귀엽쥬, 예쁘쥬, 사랑스럽쥬~ 경자년 쥐 캐릭터 인기

유통업계, 쥐 캐릭터상품 선봬

팝소켓코리아 미키·미니마우스 2세대 팝그립 ‘스와퍼블’ 4종 **지유** 미키마우스 콜라보 컬렉션 **SPC삼립** 통과제리 치즈제품 **스와치** ‘치즈’ 컬렉션 선보여



미키와 미니 마우스 팝그립 4종(위)과신세계 면세점 쥐띠해 경품 1등 골드바.

/팝소켓코리아·신세계면세점



(YUMYUM)

2020' 브랜드 테마

로 통과 제리의 제리가 좋

아하는 다양한 치즈 제품을 출시했다. 파리바게뜨도 ‘통과제리’ 캐릭터를 활용한 신년 제품을 출시했다. 미국 워너 브라더스의 장수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통과제리’를 그래픽과 패키지 디자인에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스위스 시계 브랜드 스와치는 쥐의 수염 등을 익살스럽게 그려 넣은 ‘치즈(CHEESE)’ 컬렉션을 내놓았다. 거울 효과의 실버 컬러 다이얼에 블랙 프린트로 표현된 쥐 수염은 인텍스를 위트 있게 표현했으며, 쥐의 귀 모양을 형상화한 루프는 감쪽함을 더

스와퍼블(Swappable) 제품으로, 원할 때마다 미키와 미니 마우스를 바꾸어가며 사용할 수 있다. 또, 휴대폰에 부착해 스마트폰 거치 및 스탠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팝탑 분리 시 무선 충전도 가능하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지유는 ‘미키마우스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을 출시하며 미키 마우스가 그려진 티셔츠, 스웨트, 후디부터 2가지 디자인의 파자마 등 18개 상품을 선보였다. 이니스프리도 쥐띠해를 맞아 ‘헬로우 2020 미키와 친구들 콜렉션’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했다.

통과 제리의 제리도 빼놓을 수 없다. SPC삼립은 신년을 맞아 ‘얍얍

해준다. 보디가드도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2020년 쥐띠 해를 기념해 ‘덕키 커플 팬티’를 출시했다. 신년을 맞아 재물과 복을 불러오는 레드 컬러와 골드 포인트 컬러를 매치한 남녀 팬티 제품으로 구성됐다. 쥐띠 해를 맞아 망토를 두른 쥐 캐릭터가 복주머니를 들고 있는 귀여운 프린트를 삽입해 눈길을 끈다.

면세점에서도 새해를 기념하는 쥐띠 마케팅을 이어간다.

신세계면세점은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 ‘주대복’과 손잡고 1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내외국인 구매 고객에게 쥐 모양이 새겨진 골드바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황금 행운이 가득한 쥐 골드바는 주대복이 2020년 쥐띠 해를 기념해 새롭게 디자인한 제품이다.

내국인은 오프라인 전

이니스프리 한정판 미키 박스 /이니스프리

매장(명동, 강남, 부산, 인천공항점)에서 1달러 이상 구매 시 응모 가능하며 3월 20일 추첨해 당첨자를 발표한다. 외국인인 100달러 이상 구매 후 스크래치 쿠폰을 받아 바로 행운을 확인할 수 있다.

1등(각 1명)에게는 850만원 상당의 골드바, 2등(각 15명)에게는 22~26만원 상당의 골드마우스 펜던트, 그리고 3등(각 40명)에게는 스마트 선불카드를 제공한다. 경품 내용은 내외국인 모두 동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유통가에서는 띠 마케팅이 화제가 된다”며 “쥐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흑삼 면역력이 홍삼의 2배”

동물시험 연구로 효능 입증 ‘뉴트리엔츠’에 연구논문 등재

CJ제일제당이 한국 전통소재인 흑삼의 영양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렸다.

CJ제일제당은 흑삼의 면역력 증진 가능성을 입증한 연구 논문이 해외 저명 영양학회지인 ‘뉴트리엔츠(Nutrients)’에 최근 등재됐다고 8일 밝혔다.

‘뉴트리엔츠’는 식품영양학 분야의 첨단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는 국제 저명 학술지로, CJ제일제당이 진행한 흑

삼의 면역력 증진에 관한 동물시험 연구에서 효능이 입증돼 이를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흑삼 제품의 면역 기능 향상에 대한 효능뿐만 아니라 홍삼(자사 제품)과 비교시 높은 면역력 증진 효과를 입증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는 실험용 쥐에 흑삼을 투여하는 동물시험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험용 쥐에게 흑삼과 홍삼을 각각 2주 동안 투여한 결과, 흑삼을 투여한 실험군이 홍삼을 투여한 대조군에 비해 면역 지표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역 지표는 세포 면역과 방어능력 등을 의미한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

장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홍삼 제품의 가장 큰 특징점이 면역력 증진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통해 흑삼의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CJ제일제당은 인삼을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리는 구증구포 과정을 통해 흑삼이 되면서 생성된 진세노사이드 등 유효 성분들이 면역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향후 국제적인 연구기관과 흑삼 효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흑삼의 영양학적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피트니스형 GS25 점포에서 이용객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GS25

GS25, 피트니스센터 GOTO와 맞손

업계 1위 편의점 GS25와 국내 최대 피트니스센터를 운영중인 ‘GOTO’가 손을 잡았다.

편의점 GS25는 전국 46개의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엔컴퍼니와 제휴해 지난 11월 ‘피트니스형 GS25’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피트니스형 GS25는 ▲점포 입지 ▲상품 구성 ▲운영 방식 등이 일반 편의점과는 다르다.

일반 편의점이 주로 1층에 입점되는 것과는 달리 피트니스형 GS25는 경기

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건물 3층 피트니스 센터(GOTO 주점)내에 위치했다. 점포의 규모는 약 33㎡의 소형이며 4000여명의 피트니스 회원들만 운영할 수 있다. 점포 운영은 자율 결제 시스템이 도입돼 무인 형태로 운영 가능하다.

상품 구성도 일반 편의점과는 다르다. 보통의 GS25가 점포 당 2000개 내외의 상품을 운영하는데 이번 피트니스형 GS25는 약 300개 내외의 상품을 취급한다.

/신원선 기자

‘소형안마기’ 설 선물 대세로 이마트, 국민가격 3종 판매

‘신체 부위별’로 안마를 해 주는 소형 안마기가 명절 선물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마트는 설을 2주 가량 앞두고 지난해 10월 선보였던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소형 안마기 3종을 대규모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인기가 많아 출시 당일 기획물량 전량이 완판된 바 있는 ‘일렉트로맨 베이직 목어게 마사지기(2만 9800원)’는 물량을 2배로 늘려 총 6000대를 마련했으며, ‘일렉트로맨 종아리발 마사지기(17만 8000원)’, ‘일렉트로맨 발마사지기(7만 9800원)’도 물량을 각각 1000대, 2000대에서 4000대씩으로 대폭 늘렸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소형 마사지기 3종. /이마트

롯데백, 펫팸족 위한 설 선물세트 선봬

유모차 커버세트, 외투 등 상품 마련

2020년 설을 맞아 롯데백화점이 ‘펫팸족’을 위한 다양한 반려동물 용품을 선보인다.

반려동물 용품은 매년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고객들은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명절에 반려동물을 위한 선물을 찾는 고객들이 많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2017년부터 ‘반려동물 전용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으며, 매년 준비된 물량을 완판할 만큼 인기가 좋아 올해에도 다양한 명절 선물을 준비했다.

우선, 반려동물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상품들을 선보인다. 핫팩 주머니가 들어있는 에코퍼방식으로 보온성을 강조한 ‘유모차 커버 세트(유모차 별도)’를 30만원에, 반려동물 외투인 ‘담블링 케이프(망토)’를 9만 8000원에, 퍼(fur) 안감으로 보온성을 높인 ‘털모자’를 3만 8000원에 판매한다. 또한 어떤 공간에서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설계된 반려동물 집인 ‘리버시블 돔 하우스’를 19만원에, 에코퍼로 제작된 반려동물 러그인 ‘방울 퍼 러그’를 12만원에 선보인다.

또한 강남점 본관 1층 집사 매장에서 오는 27일까지 ‘반려동물 맞춤 한복’ 팝업스토어(임시매장)를 운영해 저고리와 치마, 배자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반려동물 선물 참고사진

/롯데쇼핑

한복과 머리핀, 노리개 등의 액세서리를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 ‘모니카 맞춤 한복’을 20만원대에 선보이며, 똑딱이 단추로 손쉽게 입힐 수 있는 ‘이즈독 찬솔왕자 한복’을 8만 9000원에, ‘이즈독 진이공주 한복’을 9만 8000원에 판매한다.

더불어 펫팸족을 위한 명절 맞이 이벤트도 진행한다. 강남점 본관 1층 집사 매장에서 1월 18일 ‘사람과 강아지가 함께 먹는 만들국 만들기 쿠킹클래스’를, 1월 18일과 19일 이틀 간 ‘설날 맞이 케이크(망토)/족두리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해 반려동물과 함께 설 명절을 즐길 수 있다. 또한 1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집사 매장에서 10만원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경자년 쥐띠해를 기념하는 ‘미키마우스 모양 반려동물 그릇’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유통단신

농심 세번째 밥 시리즈 소시지맛 ‘바이킹밥’ 출시

농심이 스낵 신제품 ‘바이킹밥(사진)’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바이킹밥은 소시지의 짭짤하고 고소한 맛과 불에 구운 풍미를 살린 스낵으로, 쌀이 들어있어 처음엔 바삭하고 씹을수록 부드



쉽게 녹는 조직감이 특징이다. 분홍색과 흰색이 섞여있어 보는 재미도 더했다. 바이킹밥은 1976년 ‘인디안밥’, 2019년 ‘에스키모밥’을 잇는 세 번째 ‘밥 시리즈’ 제품이다. /박인용 기자

대웅, 英 아박타와 줄기세포면역치료제 JV설립

(조인트벤처)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위한 연구 아피머 단백질, 조직침투에 이점 줄기세포 플랫폼, 대량생산 가능 비항체 단백질 치료패러다임 기대



대웅제약이 영국계 바이오텍 기업과 협력해 줄기세포 플랫폼을 통한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대웅제약은 지난 12월 31일 단백질 치료제 플랫폼 개발회사인 아박타와 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세포치료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조인트벤처의 대표이사직은 대웅제약의 전승호 사장이 맡는다.

이 회사는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기능강화 줄기세포 연구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대웅제약은 중간엽 줄기세포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그리고 아박타는 특정 타깃의 특이적 아피머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조인트벤처에 각각 부여할 계획이다.

아박타가 보유하고 있는 아피머 기술은 'Stefin A'라는 체내 자연 발생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단백질 치료제

플랫폼이다.

아피머 단백질은 항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항체유사단백질로, 기존 항체의 약 10분의 1 크기로 조직 침투 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대웅제약의 줄기세포 플랫폼(DW-MSC)은 배아줄기세포와 유도만능줄기세포(역분화줄기세포)로부터 유래된 중간엽줄기세포로서, 배양 횟수에 제한이 있는 기존 성체 조직 유래 중간엽줄기세포와 달리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치료효과가 있는 유전자를 줄기세포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배양이 필요한데, 이러한 요건을 갖춘 DW-MSC는 유전자 도입을 통해 줄기세포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승호 사장은 "양사 조인트벤처 설

립은 대웅제약이 오랜 기간동안 추진해 온 오픈콜라보레이션 사업의 획기적인 결과물"이라며 "아박타의 아피머 기술과 대웅제약의 줄기세포 기술을 융합해 기존의 항체 기반 요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비항체 단백질 형식의 치료 패러다임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라스테어 스미스 아박타 사장은 "아피머 플랫폼과 대웅의 줄기세포 기술의 결합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대웅제약과의 조인트벤처 설립은 면역매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박타는 대웅제약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러한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CU 수제맥주 /BGF리테일

CU "日 맥주 대신 국산으로"

지난해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편의점에서 일본맥주의 점유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올해부터 종량제가 시행되며 국산 수제맥주가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CU에 따르면,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지난해 7월부터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되면서 일본 맥주는 전년 대비 매출이 90% 이상 급락했다.

일본맥주의 2019년 하반기 월별 전년 대비 매출성장률을 보면, 7월 -52.2%로 절반 이상 떨어진 이후 8월 -88.5%, 9월 -92.2%, 10월 -91.7%, 11월 -93.1%, 12월 -93.8%로 최근 6개월 동안 큰 폭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일본맥주의 입지가 흔들리자 국산맥주가 그 자리를 메우기 시작했다.

국산맥주는 지난해 상반기 1~5% 한 자릿수 매출성장률에서 하반기 들어 30%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그 중 기존 맥주들과의 차별화를 앞세운 수제맥주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

CU에서 수제맥주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40%대의 신장률을 보였으나 일본맥주 매출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하반기부터 7월 159.6%, 8월 200.4%, 9월 207.1%, 10월 284.9%, 11월 290.1%, 12월 306.8%로 전년 대비 매출이 경중 뛰었다. 이에 따라 국산맥주에서 차지하는 수제맥주의 매출 비중도 2018년 1.9%에서 2019년 5.6%로 큰 폭으로 올랐다. 수제맥주의 이러한 인기는 올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종량제 전환으로 인해 그동안 대량 생산이 힘들어 생산 단가가 높았던 수제맥주도 차츰 가격경쟁력을 갖추므로써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제넨바이오, 면역억제 신약 개발 나서

'GX-P1', 'BSF-110' 기술이전 계약 규모 최대 1910억+로열티 장기복용 가능한 신약 개발



제넨바이오 김성주 대표(오른쪽)가 7일 제넥신 경영철 대표와 차세대 면역억제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이식 전문기업 제넨바이오가 제넥신의 신약후보 물질인 'GX-P1'과 'BSF-110'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확보한 두 물질을 기반으로 제넨바이오는 이종장기이식 분야는 물론, 현재 동종이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면역억제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면역억제제 신약개발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제넨바이오는 이번 계약으로 해당 물질을 이식 분야에 활용하는 데 있어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전용 실시권을 갖게 된다.

기술이전 계약 규모는 최대 1910억원으로, 제넨바이오는 이번 계약시 제넥신에 70억원을 지급하고, 향후 물질 개발 및 상업화 마일스톤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술료를 지급해 나갈 계획이

다. 상업화시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 또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제넨바이오와 제넥신은 지난 7월 MOU를 맺고 공동으로 GX-P1과 BSF-110 관련 비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이어왔다.

제넨바이오는 이번 계약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해 부작용을 줄여 장기복용이 가능한 면역억제제 신약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바이오제네틱스, 대체육 진출 166조 시장 공략 준비 갖췄다

(10년내 예상규모)

'위드바이오팜'과 대체육 공동개발 육즙성분 추출로 확실한 차별화 콩뿌리혹서 일정량 추출 가능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대체육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를 모두 보유하게 됐다.

대체육 시장에 진출한 바이오제네틱스가 대체육 분야 선두업체인 위드바이오팜과 함께 '육즙성분(레그헤모글로빈)'을 추출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의 출원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바이오제네틱스는 대체육 분야 최초 미래형혁신 식품기술개발사업 국책 과제 선정 주관연구기업인 '위드바이오팜'과 대체육 공동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 특허는 지난달 '대체육 대량생산 및 상업화 핵심특허' 출원 완료에 이은 두 번째 특허 출원으로, 콩뿌리혹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대체육의 맛과 식감의 핵심인 육즙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다.

기존 인공육 출시 제품은 단순히 식물성단백질 압축성형 제품인 반면, 자사가 개발한 제품은 핵심기술인 '육즙성분'이 가미돼 맛과 식감면에서 기존 제품과 확실한 차별화가 가능하다. 이처럼 바이오제네틱스는 '육즙성분'을 원재료인 콩뿌리혹에서 일정량으로

영국 바클레이즈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육 시장은 향후 10년 내로 최대 1400억 달러(약 166조54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46억 달러보다 30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바이오제네틱스는 시제품 생산에 속도를 내고, 160조 글로벌 대체육 시장을 본격 공략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됐다. 특히 대체육은 이번에 개최된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0'에도 소개될 만큼 전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지난 2016년 대체육으로 만든 햄버거 '임파서블 버거'를 개발해 화제가 된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의 스타트업 임파서블푸드사는 CES 2020에 콩으로 만든 인공 돼지고기와 소시지를 처음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다.

UN은 돼지고기가 전 세계 육류 섭취량의 36% 가량 이라고 평가했는데, 대체육은 글로벌 사업 확장에 중요한 제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세경 기자

골든블루 주류 제조 전문가 꿈꾸는 장학생 모집

골든블루는 '마스터블렌더 육성 프로젝트' 4회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마스터블렌더란 주류 제조 전문가로 원료를 직접 선택하는 것부터 발효, 증류, 숙성까지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한다. 나아가 향과 맛을 블렌딩하고, 제품의 우수한 품질이 오래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정도로 책임감이 막중한 전문가다. 국내 1등 정통 위스키인 '골든블루'를 비롯해 세계적인 위스키인 조니워커, 발렌타인 등 명성을 자랑하는 대다수의 위스키 제품도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마스터블렌더의 손을 통해 탄생했다.

골든블루도 국내 최고의 주류 전문

가이자 마스터블렌더를 배출해 향후 대한민국 주류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해리엇와트대학교 양조·증류학 석사과정을 이수할 장학생을 찾고 있다.

해리엇와트 대학교는 1821년 긴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양조·증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훌륭한 주류 제조 전문가를 꿈꾸는 최종 선발된 장학생들은 해리엇와트대학교에서 국내에선 습득하기 어려운 기술력과 노하우 등을 전수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사학위취득자 또는 2020년 2월 대학졸업예정자로 IELTS Academic 6.5 이상의 성적이 필수 조건이다. /박민용 기자

스타벅스 2020년 럭키백 출시... 1.7만 세트

MD상품, 음료쿠폰 등 10가지 구성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오는 9월 2020년 경자년을 맞아 MD상품과 음료 쿠폰, 멀티백 등 10가지 구성품을 제공하는 럭키백 세트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럭키백은 총 1만7000세트를 준비했으며, 럭키백 전용 신상품으로 제작한 블랙 컬러의 소가죽으로 만든 카드 지갑을 포함해 지난 시즌 출시한 텀블

러, 머그, 워터보틀, 머들러, 코스터 등 다양한 상품으로 럭키백을 구성했다.

여기에 럭키백 구매 시 출력되는 영수증 음료 쿠폰 3매를 현장에서 즉시 제공하며, 1000개의 럭키백에 한해서는 음료 쿠폰 4매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어 최대 7장의 무료 음료쿠폰을 받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올해에는 PET 소재를 재활용한 실로 제작한 가방 형태의 친환경 멀티백에 담아서 제공한다. /박민용 기자 parkiu7854@

이디야커피 인기 디저트 마카롱 3종

이디야커피가 디저트 제품 마카롱 3종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마카롱은 프랑스식 디저트로 바삭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아름다운 색깔의 조화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디야커피의 마카롱 신제품은 쫄쫄한 꼬꼬(마카롱 겉부분) 사이에 다양한 맛의 크림을 넣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마카롱의 특성을 잘 살려 출시했다. /박민용 기자



“20분 임금계산 AI로 6초 만에… 올해는 리걸테크 원년”

〈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AI 기업인

임영익 인텔리온연구소 대표 변호사

1990년대 후반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 수학 튜터 개발 사업에 나섰지만, 당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낯설고 사용하는 것조차도 꺼리던 시절 이어서 사업에 성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0년 분야를 바꿔 국내 최초로 법률 AI 기업을 설립했고, AI 시장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어느덧 시장 선두업체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바로 AI 시장을 개척해온 인텔리온연구소 임영익 대표이사(사진)의 스토리이다. 그가 법률 쪽으로 눈을 돌린 것은 메타 연구소 시절, 지식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대법원의 전산화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쌓은 경험이 큰 바탕이 됐다. 회사 이름도 이전 사업과 연장선상에서 인텔리온 메타연구소로도 부른다. 사업시험에도 도전해 201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을 전공한 그는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사업을 했지만 한 번의 실패를 겪은 후 2000년대 중반 미국으로 건너가 수리심리학과 뇌과학을 공부했다. AI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것은 닷컴 버블이 꺼진 후 미국에서 지

논리적인 韓 법, AI와 궁합 잘맞아 7년 동안 원천기술 개발에만 몰매 ‘법률메카·유렉스’ 무료로 서비스

계약서 자동 분석기 ‘알파로’ 선배 문서 통째로 이해하고 리스크 분석 변호사법 위반 우려에 고도화 진행 한국과 법 유사한 일본 진출 준비

식 기반 플랫폼 사업이 펼쳐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구글에 1조4000억원에 매각될 당시 유튜브는 적자를 내고 있었고, 저는 100억원의 가치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격이 컸어요. 구글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고, 야후 등에서는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상황이었죠.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예상을 뛰어넘는 투자를 단행한 것이죠.”

구글이 검색 기반으로 축적된 데이터로 AI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들렸고, 2006년 딥러닝이 발표되면서 ‘인공지능이 부활하는 신호탄’이라는 걸 직감했다.

“지인을 통해 법률에 대해 알아가면서 법은 논리가 정형화돼 있고, 한국 법은 수학과도 연결돼 인공지능과 궁합이 잘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 소셜 베네핏(사회적 이익)도 크죠.”

회사 설립 후 6~7년 동안 원천기술 개발에만 매달렸다. 2017년부터 2년간 영국



임영익 인텔리온연구소 대표 변호사가 6일 인텔리온연구소 본사에서 메트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송진영 기자 son@

런던에서 진행된 세계법률인공지능경진대회에 출전해 2년 연속 우승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 결과, 법령·판례 검색 엔진인 ‘유렉스’, 법률 Q&A 시스템인 ‘법률메카’, 계약서 자동 분석기인 ‘알파로’ 등 3종의 제품을 개발했다. 유렉스와 법률메카는 이미 지난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는 “간단한 답변을 제공하는 라이브 버전의 AI는 무료로 서비스하고, 변호사를 보조할 수 있는 복잡한 분석기는 유료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로는 문서를 통째로 이해할 수 있는 기계독해(MRC) 기술을 적용해 법률 문서, 계약서를 입력하면 이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분석해줍니다. 의미 추론형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했는데 법률에 특화된 독보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긱방망이를 때려’란 문구를 폭행으로 이해하고, 형법 등 어느 조항과 관련이 있나 추론해 알려줍니다.”

알파로는 지난해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개최한 ‘제1회 알파로 경진대회’에서 20분이 걸리는 임금 계산을 6초 만

에 해내는 성과를 보여줬다.

“알파로는 법률 분석기, 판례 분석기, 입법 예측기, AI 판사, 법률 번역기 등 크게 5 분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노동법, 부동산, 형법, 기업법 등 도메인별로 100여 가지 제품이 필요한 만큼 수많은 버전을 만드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알파로는 인간 변호사처럼 답을 제시할 수 있어 상용화가 되면 변호사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성능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몇몇 기업, 로펌, 기관 등과 어떻게 상용화할 수 있는 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임 대표는 해외에도 진출할 계획인데, 우리나라와 법이 유사한 일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유렉스와 법률메카를 시민들이 쓰기 쉽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알파로는 현재 1.5 버전까지 개발됐지만 상용화가 가능한 2.0 버전을 올 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임 대표는 법률 AI를 성공적으로 개

발한 만큼 올해에는 영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저희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작했기 때문에 법률 AI 보급이 아직은 이르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고객사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50여개 기업이 리걸테크 시장에 진출하면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현재 5여 개사가 시장에서 진출했고, 10여개 기업 정도가 새롭게 진입을 준비하고 있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리걸테크 시장이 5년 여 전부터 커지면서 몇 개 기업이 상장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올해가 리걸테크 시장이 커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법률 AI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상용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의 상당수를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영국에서 발표된 논문에서 AI가 변호사를 대체한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영국은 재판물 나가는 송무 변호사, 사무직 내근 변호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무직 업무는 AI가 많이 대체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의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송무와 고급 법률 자문입니다. 이 업무는 AI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변호사 대체 정도는 10% 미만에 그칠 것입니다.”

오히려 미래학자들은 AI가 변호사를 대체하는 것보다 먼저 판사를 대체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판사는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일반 맡기 때문이다.

“AI 판사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AI 판사를 도입하는 데 기술적으로는 쉽지만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크기 때문에 대체가 어려울 겁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지자체, 공간 풀어 AI 본격 육성… ‘스마트시티’ 쟁점

서울시 양재 AI허브 스타트업 지원 광주시 산단, 빅데이터센터 등 조성 경기도 AI 산업 지휘할 전략관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늘리고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지원 등 AI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올해 ‘AI 중심도시 광주’를 핵심 사업으로 내세운 광주는 물론 서울시, 경기도 등도 AI 산업단지 조성,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핵심 인재 양성, AI 서비스 도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AI 국가전략’ 발표를 통해 AI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등 AI에 사활을 걸고 있어 지자체들도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행정, 교통, 에너지,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AI 서비스를 도입하고,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AI 기업 육성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AI 양재 허브를 확대해 AI



광주시 AI 산업단지 조감도.

/광주시

스타트업들을 위한 AI 허브 전용 빌딩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빠르면 올해 말 빌딩 신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지원 기업 수를 현재 70개에서 2022년에 18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AI 허브 지원 기업을 40개 늘려 11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R&D 지원 사업에 40억원(지난해 29억

원)이 배정된 만큼 이 자금과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AI 기업들에 R&D 연구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AI 정책 조율을 위해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산하에 인공지능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최근 AI 회의록을 구축 완료한 만큼 올해 행정에 적용을

본격화하고, 시 공무원들의 AI 인사이트를 높이기 위해 AI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을 늘릴 계획이다.

또 올해 하수관로 결함 방지를 위해 CCTV의 영상에서 결함을 찾아주는 업무에 AI를 도입할 계획이며, 스마트도시, 교통 분야 등에도 AI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수요를 조사해 AI 학습데이터를 만들어 기업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이외에 현재 진행 중인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통해 AI 수요자와 공급자 매칭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광주 AI 선도도시 원년의 해’로 정하고 200억원을 투입해 ‘AI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사업’에 나선다. 또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문화와 연계해 AI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광주시는 특히 이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AI산업융합사업단을 설립하고 사업 추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4061억원을 투입해 공

공빅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AI 핵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에만도 1000억원 규모가 AI 사업에 투자된다.

광주시는 또 AI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10월 과기정통부와 ‘대한민국 인공지능 클러스터 포럼’을 발족시켰고, 판교테크노밸리 전문가와 협업도 추진했다.

광주시는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최근 전략산업국을 인공지능산업국으로 개편하고 인공지능정책과도 신설했다.

경기도도 AI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34억원을 투입해 ‘AI 기반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AI 기반 융복합산업 육성 정책을 총괄할 AI 산업전략관을 신설했다. AI 산업전략관은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정책을 결정하고, 드론,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AR(증강현실) 및 VR(가상현실) 등 AI를 적용한 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치피가 클까? 내 얼굴이 클까?

NEW

치피가이

한국식 파이형 치킨디저트

(요니엔 / 치즈 / 칠리)
시즈닝과 함께 하면
더욱 맛있습니다.
+ 200원



 더 크고 매운맛
하버네로 (L)
₩4,300

VS



고소한맛 (S)
₩3,400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간도 판매 지역

‘나주 SRF’ 환경성조사 업체 선정... 이달말 시험 가동

〈고형폐기물연료〉

조사 시행업체에 도화엔지니어링 발전시설 가동, 3개월간 진행 조사 범위,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전남 나주혁신도시 SRF(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가동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실시될 ‘환경영향성조사’를 위한 준비 절차와 발전소 시험가동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8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영향조사위원회가 복수의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도화엔지니어링이 환경영향조사 시행업체로 선정됐다.

난방공사는 오는 10일 도화엔지니어링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13일 환경영향성조사 착수보고회를 거쳐 30일부터 환경영향성조사 실시를 위한 발전소 시험가동 준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발전시설 가동은 시험가동 2개월,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뉴스

본 가동 30일을 포함해 총 3개월 간 진행된다.

SRF연료 투입량은 발전소 가동 추이를 살펴가며 점차 늘리는 방식이며, 본 가동 30일 동안에는 1일 440여t 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조사 범위는 주민수용성 조

사 범위와 같은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이며, 측정은 총 9개 지점에서 이뤄진다.

측정 횟수는 SRF 발전시설 가동 전 1회, 가동 중 2회 이뤄지며, 가동 중 1회 측정지점은 9개 지점 중 4개 지점을 5km 이내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조사항목은 환경영향조사는 일반대기 7개·유해대기 10개 등 대기분야 17개 항목과 악취 10개 항목, 고형연료 성분 7개 항목, 소음 3개 지점, 굴뚝 오염물질 19개 항목 등을 SRF발전시설 가동 전과 가동 중 각 1회씩 측정한다.

이 중 대기오염물질 17개 항목에 한해 가동 중 1회 추가 측정하기로 하고, SRF발전시설 가동 전 굴뚝오염물질 19개 항목은 측정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SRF 발전시설 가동 기간 중에 주민 10명 이상이 집단 질환(호흡기질환·피부질환 등)을 호소할 것에 대비해 5인으로 구성된 ‘보건분야 검증단’도 운영된다.

검증단은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소견서를 첨부해 나주시 보건소에 접수하는 업무 등을 전담한다.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환경영향조사에 이어

‘주민수용성조사’(주민직접투표+공론화방식) 실시를 위해 이달 중순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말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발전소 연료가 기존 SRF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방식으로 100% 변경 결정될 경우에 대비한 ‘손실보존방안 기본안’ 마련을 위한 실무대책반회의도 이달 말 열린다.

민관협력거버넌스는 오는 2월 초에 ‘제17차 거버넌스 위원회’ 회의를 열고 환경영향조사 추진상황과 주민수용성조사 실무위원 구성안, 손실보존방안 실무대책반 구성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SRF갈등 해결의 분수령이 될 주민 직접투표 방식이 포함될 수용성 조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2개월 전후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6월 이후에나 공론화조사와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동네방네

김천시

“금연성공 도와드려요”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들의 편의제공과 금연성공율을 높이고자 오는 2월 21일 까지 시청 민원실에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주 5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4시까지 민원실에서 운영되는 금연을 원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연상담사가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서비스로는 금연등록, 니코틴 의존도 검사, 체내 일산화탄소 측정으로 금연보조제, 행동 강화물품 등이 있



김천시

다. 한방 금연침 시술과 치료에서는 치주검사 및 구강상담을 통해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부산상의, 지역현안위해 자문위 열고 ‘한목소리’

국가균형 발전 등 5개 분야 정책 과제 과제집 발간

부산상공회가 21대 총선을 맞아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

부산상공회의소는 8일 21대 총선 공약 정책과제집 발간사업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분야별 정책과제를 점검했다.

부산상의는 국가 균형 발전, 미래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동북아 해양수도, 관광·마이스 등 5개 분야에서 23명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과제 선정작업을 벌여왔다.

먼저 국가균형발전분야에서는 24시간 관문공항 및 공항복합도시 건설, KTX 남해선 신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신사 신규 설립,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7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는 신공항 연계 항공 MRO 산업단지 구축, 선박 재제조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시티 시범사업 등 6개 과제를 선정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스마트시티 혁신 플랫폼 개발, 서비스 연구개발센터 설립,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등 7개 과제를 추진한다. 동북아 해양수도 분야는 수소에너지 구축 실증사업, 스마트 물류 기반 복합물류지원센터 설립, 부산신항 대형 수리조선단지 개발,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체계 구축 등 9개 정책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부산=최인락 기자 remark@

광주시민이 뽑은 우선 사업 ‘광주형 일자리 정착’ 31%

광주사회조사, 환경 등 7개부문 조사 미래전략산업 육성, 특화산업 육성 순 좋은 일자리 창출, 중점 추진해야 61%

광주시민들은 광주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으로 광주형 일자리 정착과 발전을 꼽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표본 4905가구 내 만 15세 이상 시민 91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 광주사회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광주사회조사는 시민 삶의 질과 주관적 의식을 조사해 사회적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 복지, 문화·여가, 안전, 사회참여, 노동, 광주시 특성조사 등 7개 부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광주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 중 가장 많이 꼽은 사업은 31.4%가 응답한 광주형일자리 정착 및 발전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공지능(AI)·정보통신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27.6%), 에너지 신산업 등 특화산업육성(14.1%),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관광 명소화(9.9%) 순이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61%)에 과반수가 넘게 응답했고, 한전을 활용한 에너지 밸리 조성(13.4%)이 뒤를 이었다.

광주시가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산업으로는 친환경 자동차산업(49%)이 가장 높았고, 에너지 및 수소산업(14.1%), 문화콘텐츠 및 관광산업(10.9%),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10.3%) 순이었다.

2019년 성과로는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50.4%)을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꼽았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25.5%), 도시철도 2호선



광주시청

건설 확정(13.5%)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분야에서 시민들의 거주지 환경분야(대기·수질·토양·소음·녹지환경)에 대한 체감도는 보통(45.6%), 좋음(만족)(30.7%)으로 응답해 2년 전 응답한 보통(44.9%), 좋음(만족)(35.9%)과 비교할 때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분야에서 앞으로 늘려야 할 공공시설은 공영주차시설(22.8%), 공원·녹지산책로(18.8%), 보건의료시설(14.6%), 사회복지시설(11.6%) 순으로 나타났다.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는 고용(취업)지원서비스(28.5%), 보건의료·건강관리서비스(20.8%), 맞벌이가구 자녀양육지원(13.1%), 여가문화 향유 지원서비스(12.1%) 순으로 답변했다.

60세 이상 시민들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67.5%), 자녀 및 친척지원(16.3%), 정부 및 사회단체보조(15.4%)로 응답했다.

문화와 여가생활분야에서 지난 1년간 해외여행 경험은 있다가 29.1%로 나타났다. 여행목적은 관광(90.7%), 가사(12.2%), 업무(7.2%) 순으로 대부분 관광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경험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인천 연수구, 마을 만들기에 1.2억 투입

인천 연수구는 ‘2020년 연수구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 마을 고유의 특성을 살려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구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분야는 형성지원, 활동지원, 서

로잇기(연계지원) 및 우리사이틀터(공간지원)의 총 4개 분야로 분야별 최대 1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우리 사이틀터’(공간지원) 분야는 올해 처음 공모하는 분야로 마을공동체가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회의실·공유부엌·공방·카페·작은도서관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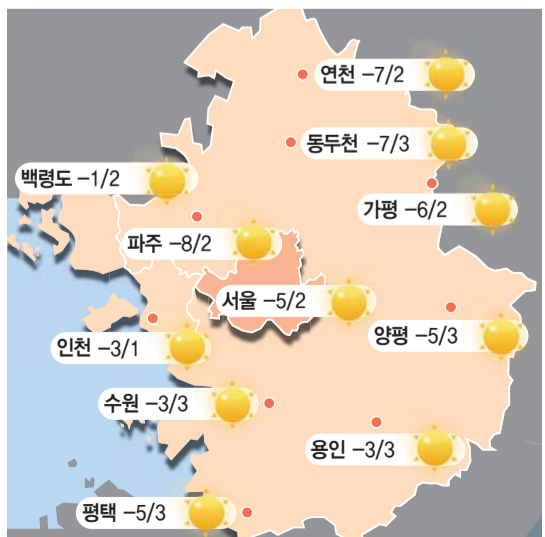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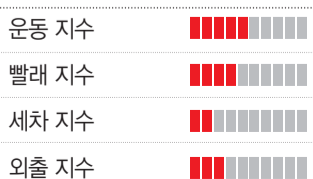
1월

9일 (木)

음력 : 12월 15일

수도권 날씨

-5 ~ 2°C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이오]
대웅제약, 英 아박타와
줄기세포면역치료제
조인트벤처 설립
L2



Life

[AI뉴스]
임영익 인텔리온연구소 대표
“20분 계산 시로 6초만에
올해는 리걸테크 원년”

L4



여의나루~동작역 한강수변길 보행친화공간 투시도.

/서울시

여의나루~동작역 5.6km 수변길 ‘변신’ 건축·조경 합쳐진 한강변 놀이공원

보행로 연결해 녹지·한강 조망
야외 전시 공간·석양 전망 데크도

서울 한강대교 남단 수변길이 걷기
편한 여가 공간으로 변신한다. 비좁고
낙후된 보행길이 넓어지고 녹지 공간
도 생긴다.

서울시는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한강코
드’(랩디에이지 조성설계사무소)를 선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여의나루역에서 한강
대교를 지나 동작역으로 이어지는 5.6
km 길이의 한강 수변길이다. 당선작은
바코드를 콘셉트로 한강변 보행로를
하나의 선형 공간으로 구성했다.

한강코드는 여의나루역과 한강 유람
선 선착장 사이 보행로를 연결해 시민들
이 한강변을 걸으며 녹지를 즐길 수 있

도록 계획했다. 셋강과 한강이 만나는
‘포켓 공간’에는 벤치 등 휴게 공간을 설
치해 시민들이 쉬면서 셋강의 조류서식
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강철교 접근 구간은 보행로를 확
장하고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다층의
석양 전망 데크를 배치했다.

노량대교 하부 공간에는 야외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을 달
았다. 다리 밑 보행로를 확장해 플랫폼
광장을 만들고 수변 공간 주변에는 계
단형 광장을 뒀다. 노량대교 인근 아파
트단지에는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분
리하는 벽을 세울 계획이다. 반포천이
합류되는 지점은 물이 있는 조경 공간
으로 꾸민다.

심사위원회는 “한강코드는 물과 수
직으로 만나는 조경의 여러 전략이 디
자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우수하
인”이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당선팀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시는 올해 6월까지 설계용역
을 완료하고 7월 착공해 2021년 6월 준
공한다는 목표다.

시는한강변 보행네트워크가 완성되
면 한강의 풍경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
고 이 일대 부족했던 공원 여가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설계공모전 당
선작은 2월 말까지 중구 세종대로에 위
치한 서울도시건축관에 전시된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은 기
존 보행로를 활용해 진행되는 새로운
유형의 수변 도시재생 사업이 될 것”이
라며 “보행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공공
미술, 건축, 조경이 합쳐진 연계 사업
을 통해 한강 수변을 재밌는 놀이 공간
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인천공항공사, 노상주차장서 주차료 받아

주차장 설치 없이 내대지서 영업
시설주차대행업체와 상생 요원

겨울방학 등 항공성수기를 맞아 해
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인천공항 주차
장이 포화되자 공항공사는 공항화물청
사역 인근에 조성중인 주차장에 해외
이용객이 맡긴 발렛차량을 주차해 물
의를 빚고 있다. 공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시설주차대행업체가 정식 주차장
이 아닌 노상주차장을 하면서 이용객들
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천공항공사
가 홍보해 온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 문
제가 크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현장은 운서
동 3211번지 일대. 지난 2일 찾아 간 현
장의 바닥은 흙과 쇠석으로 다짐이 되
어 있는 상태로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
은 내대지에 수 백대의 차량이 주차되
어 있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
곳은 임시주차장이라고 말했다.



47개 주차업체가 가입한 인천공항주차협동조
합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서 100일 가까이 생존권 보
장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지만 공항공사는 대
화의 창구를 열고 않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주차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서비스팀 관계자에 따르
면 ‘아스팔트 등으로 노면시설과 펜스
를 설치해 구역을 구분하고 보안시설
과 출입차단시설을 설치한 주차시설에
한해 장기주차장과 같은 주차요금(1일
9000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차 현장은 노면시설은 물론 보안시
설도 없고 진·출입 차단시설만 설치되

어 있었다.
주차시설은 공항시설 설치사업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계
획을 수립해 서울지방항공청(이하 ‘서
항청’)에 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
지만 서항청 담당자는 “해당지역에 사
업계획에 대해 접수된 사항이 없다”고
했다.

해외여행객이 물리는 하계와 동계성
수기에 인천공항은 주차장 혼잡으로 흥
역을 치른다. 장기주차장의 이용률이
105%가 넘으면 직접 주차하려는 일반
고객들을 공항공사 잔디밭으로 안내해
주차료를 받지 않고 주차하게 하고 있
다. 장기주차장이 포화됨에 따라 인천
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공식주차대행
업체에 차를 맡기면 대부분 공항공사가
조성한 외곽 주차장에 주차시킨다. 공
항공사가 벌어들이는 주차장 수입만 년
간 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취재본부 김창근 기자 mirex@

경기도 “3기 신도시, 복합자족 도시로”

교통·에너지·단지내 공원 등
3기 신도시 로드맵 구체화 돌입

경기도가 ‘교통이 편리한 복합 자족
도시’에 중점을 둔 ‘3기 신도시’ 로드맵
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3기 신도시 TF’를 시행
자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함께 동참
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실정을 보다 자세
히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수도권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은 3기 신
도시 등 24곳이며, 전체 주택 공급 물량
30만 호중 약 80%에 해당하는 24만 호
에 달한다. 이 중 LH와 경기도시공사
공동 추진사업은 3곳(하남교산, 과천과
천, 안산장상), 경기도시공사 단독 시행
은 4곳(광명테크노, 용인플랫폼, 안양
관양, 안양인덕원)이며, 기초지자체 지
방공사 참여까지 고려 시 역대 주택공
급정책에서 지방 참여 최고 수준이다.

도는 지방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년
3개월여 간 중앙 건의와 정책협의를 진
행,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의
지방 참여 비율이 각각 35%와 45%로
최종 확정됐다.

도는 직주근접 도시 조성을 위해 ‘신
도시에 신산업’ 전략으로 신도시 발전



경기도 3기 신도시 위치도

방향 선도하겠다는 입장으로, 기관
간 주력할 수 있는 역할 분담안을 구체
화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올해 안에 지
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감 있
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점을 두는 부분은 ▲미래 주
택유형 도입 ▲공공중심 기업생태계
조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및
역세권 중심 배치 ▲주요 철도 등 교통
대책의 최적화 ▲복합적 모빌리티 교
통수단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위한
친환경 충전인프라 조성 등이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지구
계획수립 및 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해 LH와 시행자 간 역할 구체화
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재
무 여건 등을 감안한 기초지자체 지
방공사의 사업 참여도 순차적으로 협의
할 계획이다. /경기=김승철 기자 kimsy@

서울시, 설 맞아 하도급 대금 체불 단속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장 14곳 대상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13일부터
2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을 집중 단
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장 14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
별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공사 대금
집행·이행 실태와 근로계약서 및 건설
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확인
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 요구·영업
정지·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
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2017~

2019년 민원 1103건을 접수해 체불액
161억5000만원을 해결했다.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 호민관을 투입해
체불 현상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지난
3년간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 124차례
를 실시하고 8700만원의 체불을 해소
했다.

고승호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
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대대금 등 각
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
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역 일대 낡은 집 고치고 에너지 효율 높여

수리 후 에너지 소모량 33% 줄어

서울시는 용산구 서계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16가구를 대상으로 노
후주택을 수리해주는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추진한 결과 에너지 소모량이
평균 33% 줄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 수리와 에너
지 효율 개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
행됐다. 시는 노후주택 수리비용 1억원
을 지원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에너지 진단 플랫폼을 활
용해 가구별 맞춤형 에너지 컨설팅을
실시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단열재·
보일러 교체,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에너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후 모습. /서울시

지 효율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300
만원씩 총 4300만원을 지원했다.

시가 사업 전후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확인한 결과 에너지 소모
량이 평균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건물 종류별로 에너지효율 등급이
약 2등급씩 올랐다. /김현정 기자

2020

올해는 더 좋을 거예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SK하이닉스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